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네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800만 이 재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게 하심으로 다양한 힌두교 신들을 섬기는 네팔사람들이 영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7-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5월 9일 (토) 제 153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네팔에 복음으로 희망 갖게 한다!

## 세계언론, 대지진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돕는 손길 교회와 선교단체들 소개

나라가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환경, 특히 사회간접자본으로 통칭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가난하기로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네팔에 최악의 지진이 강타했다. 지진이 강타한 25일 토요일은 마침 네팔의 공화국 선포일(Loktantra Diwas)로 연휴였다.

네팔은 정말 가난한 나라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히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거기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네팔의 한 가운데로 지진파가 미치지 않은 네팔의 영토는 없다. 산악 지역에서 지진은 반드시 산사태가 따라온다. 산사태에 쓸려간 사람들이 살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네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힌두교도들은 사망 뒤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야 한다. 실종자가 생

존해 있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주검을 빨리 찾지 못해 제 시간에 사망자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은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두 배의 슬픔이다.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 없다. 네팔은 장비도 없고, 무엇보다 해발 4000m 이하는 산이라 부르지도 않고 언덕이라 부를 정도로 지형이 험한 나라다. 이런 지역에서 벌어진 참사(사망자 5,570명, 부상자 8,000명, 이재민 8백만 명으로 추정)를 맨손으로 수습할 방법은 없다.

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네팔을 향한 교회공동체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기독교 NGO들은 지진 발생 하루 만에 인도적 지원활동에 돌입했다. 주요 교회와 단체들은 현지에 파송한 장·단기 선교사와 봉사대원들의 피해 여부 파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희생자들과 현지 선교사, 구호원들을 위한 모금과 중보기도도 이어지고 있다.

소박한 사회간접시설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 재앙이 닥쳤다. 그 시설의 수준이 워낙 소박했기 때문에 작은 충격만으로도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는데, 회복불능의 재앙은 이 사람들에게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뭘인 이들이 최악의 참사에 맞서고 있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장비와 그 장비에 능숙하게 다루는 전문 인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재앙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데 얼마가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이유로 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 요청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다.

먼저 적십자, 국경없는 의사회, 크리스천에이드, 사마리아인의지팡이 등등 곧바로 단체들의 응급 구조 팀과 물자를 네팔 주변 국가에 급파해 응급처치에서부터 임시 대피처를 마련해 사체를 수습하면서 이재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지진 이전부터 턱 없이 부족했던 국가 기반시설 복구에는 이재민들에게 우선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지팡이'는 재난대처 팀과 의료진을 파견해 우선 15,000 가구를 총망할 수 있는 임시 대피처, 물, 위생 도구와 다른 재난 응급 물건을 나눠주었다.



대 참사를 당한 네팔에 세계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쏠리고 있다.

연합감리교회(UMC)선교국 역시 네팔 현지 선교사들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일단 9만 달러를 들여 먹을 물이 없거나 오염된 지역에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또한 각종 구호 물품이 오고가는 트리부반 공항에서 새우잠을 자

고 크래커로 끼니를 대신하며 네팔 구호작업에 힘쓰고 있다. WFP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구호 작업에 임하고 있다: 1. 생존자 및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식량을 전달한다. 2. 대규모의 긴급 구호 활동을 제공한다. 3. 구호 허브 서비스를 제공해 인도주의 단체들을 돕는다.

(3면으로 계속)

# 과다한 교회 일, 영적 성숙 방해

ThomRainer.com, "교회 행사 활동 '비즈니스 다이어트' 필요" 조언

바쁘지 않은 교회는 없다. 오히려 너무 바쁘게 문제일 정도이다. 즉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과 사역들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비즈니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리더들이 행사나 활동들을 경건 혹은 사역의 열매와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울 어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슬픈 사실은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바쁜 교회들에서는 실제적으로 제자 삼는 사역의 열매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여러분의 교회 역시 무작정 관례적인 행사나 인기 있는 사역을 향해 돌진할 수 있다. 교회들은 아래의 7가지의 이유로 프로그램이나 행사 다이어트를 추구해야만 한다(Seven Reasons Your Church Needs to Go on a Diet)고 탐 S. 라이너 목사(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는 권면한다.



## 행사 활동은 경건·제자 사역 안돼... 열매줄고 탈진 모든 활동 리스트 만들고 현존하는 2개 활동 정리

1. 지나친 행사나 프로그램들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실제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 일전에 어떤 성도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그 성도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교회행사를 감당하느라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2. 너무 바쁜 교회들은 치루고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할 시간이 없다. 리더들의 가장 대표적 착각은 부지런하게 바쁜 것이 열매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3. 행사나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들은 종종 외부가 아닌 내부지향적이다. 교회 밖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사역보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기독교상담학 석사과정 개설"

원격교육의 특징

1. 학사(BABS/BACC), 석사(MAT/M.Div/MACC) 정규학위 취득
2.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대학원 학점인정 및 편·입학
3. 목회학 석사과정 이수 후 미군 군교로 지원
4.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과 인준기관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TRACS 정회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855



2면

정치-교리적 전쟁 틈새 강제 or 교묘하게 세력 확산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회중을 예배에 몰입하게 하라!



16면

인/티/뷰 나영애 목사

#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구호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제기아대책 긴급구호팀(Emergency Relief Unit)은 지진 피해로 가족과 집을 잃고 길에서 생존의 위협 속에 고통 받고 있는 네팔 난민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긴급구호 헌금을 보내실 곳**  
**KAFHI**  
411 Kingston Ct.  
Mount Prospect, IL 60056  
(memo: 네팔 긴급구호)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KAFHI)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847-296-4555, 703-473-4696  
LA 사무소: 10701 Holder St, Cypress, CA 90630 www.fh.org, kafhi@fh.org, shchung@fh.org

국제기아대책기구로 알려진 FHI는 Food for the Hungry의 한글번역입니다. Food for the Hungry는 설립자 래리워드 박사가 성경 시편 146:7에서 "food to the hungry"에서 영감을 얻어 기구의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미국 및 국제적 법적 영문명칭은 Food for the Hungry/FHI이며 다른 영문 명칭과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론

"사막형 인간이 되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필자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지금 절수 정책(節水政策)으로 피 말리는 전쟁 중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가뭄이 4년째 지속되고 있고, 1895년 이후 강우량도 최저 수준이다. 지난 4월 1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심각한 가뭄에 따른 물 절약을 위해 지자체별로 2013년 보다 25% 이상 강제 감축하는 행정명령을 하달하였고, 가뭄에 따른 물 절약을 위해 식당 손님이 원하지 않으면 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가 내린 뒤 48시간 동안은 외부에 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주지

사 행정명령으로 5월까지 지자체별 절수목표가 정해지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정부에 하루 1만 달러씩의 벌금을 매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물 절약에 대한 비상사태에 처한 국면이다. 그래서 그런지 비가 오는 기미만 보여도 기다린 손님이 오는 듯 반갑기 그지없다.

지질이나 토양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가뭄현상으로 인해 가파르게 사막지대로 변모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연중 강우량이 2,500mm 이상이 되면 열대 다우림을 형성하며 우거진 밀림을 만든다. 강우량이 600mm 정도로 떨어지면, 우거진 숲을 발견하기 어렵고 스텝(steppes)이라는 초원지대를 형성하게 되어 목축업에 유용한 지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250mm 이하로 떨어지면 이곳은 점점 사막지대로 변하여 가기 때문에 생물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이 치닫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속화되는 사막화 현상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이다.

이러한 불모지와 같은 사막지대에서 적응하며 생존해가는 식물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인장이다. 선인장의 생존전략은 그리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한번 비가 올 때 최대한 물을 많이 확보하고 저장한 물도 가끔씩 소실되지 않도록 보호를 한다. 그래서 최대한 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뿌리를 그물처럼 가급적 널리 뻗어 수분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한다. 선인장의 일처럼 생긴 푸른 몸체는 사실 줄기인데, 다육 질이어서 물을 많이 저장하면서도 유실되지 않도록 공기 구멍수는 아주 적으며, 표면은 납질로 덮여 있어서 조금이라도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가시는 잎이 변하여 된 것인데, 가시로 변한 이유는 야생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수분 증산을 막아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의 일환이다. 가시의 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잎이 달린 자리가 있듯이 가시가 달린 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능한 한 주변의 복사열을 받아 식물체의 온도를 높이지게 하는 조절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 온도 변화가 극심한 사막 기후와 역행하여 스스로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사막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도록 자신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다.

봄날이 되면 가끔씩 들에 나가곤 한다. 특히 비온 뒤에는 사막과 같은 들판에도 어느새 온갖 피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모습에 놀라기도 하며 영감을 얻기도 한다. 사막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생존의 전략에 감탄을 하게 된다. 더불어 들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꾸시고 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 현실이나 혹은 한국의 정치현실, 아니 심지어 교단의 문제들이나 교회 안팎의 문제들을 겪어가면서 때론 답답해하고, 때론 사람이 나 환경을 탓하기도 하며,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다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결국 현실을 부정하려는 은둔주의형의 묵회와 설교로 치닫게 된다. 그러나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도 분명 하나님의 생존 전략이 존재함을 미물에도 속한 것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푸르고 청정한 복음적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청정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사막형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막형 인간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담아야 한다. (12면으로 계속)

# 정치-교리적 전쟁 틈새 강제 or 교묘하게 세력 확산

## CH, 교회사 통해 본 이슬람 지역 확장의 비밀 소개

지난 4월 퓨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지구촌에는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와 비슷한 수준까지 다다르게 된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전체의 10%를 차지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이슬람교가 유대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슬람은 7세기에 들어서 엄청난 확산을 보였다. 바로 기독교 제국들이 정치적, 교리적 전쟁을 벌이는 동안, 때로는 강제로 때로는 교묘하게 주변을 장악해나갔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이슬람 확산의

비밀이라고 '처치히스토리(Church History, CH)'는 지적한다(Secrets of Islam's Success: It spread faster than any other religion in history. Here are some reasons why).

과거 이슬람 확산의 비밀을 아는 것은 향후 적면하게 될 무슬림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IS의 확장에서부터 이민과 출생률로 유럽 사회에 '이슬람포비아'를 심화시키는 오늘날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무함마드가 사망한 632년 당시,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 일부 지역에서 안정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무함마드의 영토 획득은 대개 이교도 축출을 의미했고, 이슬람은 기독교 지역까지 정복하길 원했다. 마침 기독교 제국은 정치적, 교리적 전쟁에 휘말려 있던 터라 이슬람의 정복 사업은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었다.

이슬람 세계의 서쪽으로는 이집트와 기독교권 북아프리카가 있었다. 이 지역은 로마 제국에 통합된 적이 있었지만, 6세기경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쪽의 베르



### 2050년 세계 이슬람인구 기독교와 비슷...미국내 유대교 넘어설 듯 오늘날 IS 확장, 이민, 출생률로 유럽사회에 '이슬람포비아' 심화

베르인들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쪽의 비잔틴인들로 분열됐다. 그리고 남쪽에는 일부 바알 숭배자들이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더 극심했던 것은 신학적 분열이었다. 비잔틴인들은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모두 있다는 교리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단성론(Monophysite) 그리스도인들은 아르메니아와 시리아 지역 교회들과 함께, 칼케돈 그리스도론(Chalcedonian Christology)을 격렬하게 거부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또 정통파(catholic), 도나투스파(Donatists, 이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배교자라고 주장했다), 네스토리우스파(Nestorians, 단성론과 칼케돈, 그리스도론 모두를 거부했다), 그리고 극단적 사막 금욕주의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들 때문에 혼란

에 빠져 있었다.

이슬람의 북쪽과 동쪽 넓은 지역에는 세력이 약화되고 있던 페르시아 정권을 치르면서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집트, 시리아 같은 속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인들과 시리아인들은 비잔틴이 몰려나오는 것을 반겼다. 더 이상 과중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교도적

의 잔재, 비잔틴 제국이 있었다. 무함마드 시대에 비잔틴은 페르시아 정권을 치르면서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집트, 시리아 같은 속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인들과 시리아인들은 비잔틴이 몰려나오는 것을 반겼다. 더 이상 과중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교도적

인' 교회들에 대한 박해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질서한 상태에 있던 중동 지역에서 무함마드의 계승자들은 급속히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무슬림들은 무시무시한 전사이자 노련한 정치가임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적들을 때로는 죽이거나 몰아내고, 때로는 경제적 으로 종교적으로 억압하면서 괴롭혔다.

최초의 이슬람 칼리프(caliph) 아부 바크르(Abu Bakr)는 중앙 아라비아를 넘어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암살당했다. 그렇지만 그의 후계자인 우마르(Umar)는 시리아에서 비잔틴 군대를 패주 시켰고, 페르시아의 마지막 황제를 집요하게 괴롭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다마스쿠스, 예루살렘, 그리고 페르시아 수도 크테시폰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우마르는 아라비아 반도의 지배를 굳혔고, 페르시아의 광활한 영토에서 최소한 명목상의 통치자가 됐다. 그는 또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모스크를 지었다. 그렇지만 우마르의 화려한 성공은 반대 세력을 낳았다.

이슬람이 장악한 새로운 지역들 대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보다 수적으로 우세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무슬림 사회에는 없는 외교, 의학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죽인다는 것은 정치 감각이 전혀 없는 조치였고, 어쨌든 꾸란은 "경전의 백성들"(Peoples of the Book, 무슬림들은 자신들과 유대

교, 기독교 신자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불렀다)에 대한 더 나은 처우를 지지하고 있었다. 유명한 우마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그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담미(dhimmi), 곧 이슬람의 피보호민 집단으로 만드는 해결책을 고안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 2015년 봄학기 박사과정 특강안내

- ▶ 4월 특강 (April 20-24, 2015)  
CC 843 Current Issu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Dr. Jong Cheon Lee
- ▶ 6월 특강 (June 9-11, 2015)  
CM 827 Church Music and Literature  
Dr. Dae Gweon Kim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 in Music 음악
  -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 in Music 음악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Div 신학석사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

# 네팔에 복음으로 희망 갖게 한다!

(1면에서 계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량은 도움이 필요한 140만 명에게 지원이 시작됐으며, 식량 지원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이어지게 된다. WFP는 네팔에 전세계 각지의 식량을 옮겨오고 있으며, 전세 비행기로 고열량 비스킷(High Energy Biscuit)과 네팔산 쌀 그리고 기타 구호 물품을 목표한 지역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장 필요한 구호물자가 이재민들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이재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럭시미 따망(14)양은 “중국, 인도에서 먹을 것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는 하루에 라면 한 봉지와 생수 한 병을 받는 것이 전부”라며 “배가 고파 위험을 무릅쓰고 굶어 간 집으로 돌아가 먹을 것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라마씨도 “간이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씻을 곳도 없어 환경이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거머리나 모기 등 병충이 창궐하며 전염병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약품 지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망 양은 “주민들이 불만을 쏟기 시작하자 정부가 ‘광장에서 나가라’고 억압해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지에선 구호물자 부족이 네팔 정부의 행정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국제 NGO 관계자는 “공항에는 구호물자가 수북이 쌓여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잡한 통관절차 등이 신속한 구호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미 맥골드릭 유엔 네팔상주 조정관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지에서 밀려드는 구호품이 카트만두 공항에 묶여 있다”며 “구호품을 처리하려면 정부가 관세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비상대책 회의에 참가 중인

한 네팔인도 “네팔 정부에는 대규모 재난을 대비한 매뉴얼이 없다. 주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소위 지진 발생 후, 72시간 즉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서 여진에 따른 추가 피해, 열악한 생활 조건,



전염병 창궐 우려, 무질서, 치안불안 등이 수도이자 지진이 강타한 카트만두에서 사람들을 탈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곧 전염병이 퍼지고 음식과 식수도 동남 것이라는 소문이 카트만두에 확산되고 있어, 현대판 출애굽 사건을 보듯이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속속들이 카트만두를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카트만두에서는 지진으로 집을 잃거나 건물의 추가 붕괴를 우려해 여전히 주민 수십만 명이 노숙하고 있다.

AP통신은 카트만두에서는 더딘 구호에 불만을 품은 주민 200여명이 교회를 방해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한 시위자는 “배가 고파고 마실 물도 없으며 잠도 잘 수 없다... 우리 7살 아이는 노숙하고 있고 날씨가 추워 사람들이 폐렴에 걸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같은 불만에 미렌드라 리잘 네팔 통신부 장관은 “전례 없는 규모

의 재해여서 구호작업에 일부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결론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네팔은 ‘신들의 나라’로 불린다. 다양한 힌두교 신들이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이들은 믿는다. 심지어 작은 돌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게 네팔 사람들의 철학이다. 그런데 25일 벌어진 대지진의 재앙 앞에서 신은 눈을 질끈 감은 것일까?

카트만두에서 구호 작업을 펼치던 네팔 엔지오 ‘수카와티’의 대표 미노드 목탄(44)이 한숨을 쉬면서 내뱉는 한 마디가 바로 지금 네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말해준다:

“대체 그 많은 신들은 어디로 간 거야?”

## 과다한 교회 일, 영적 성숙 방해

다는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 안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사역에 집중하는 위험성이 따른다.

4. 너무 바쁜 교회는 “가정”에 상처를 줄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부, 중고등부, 장년부를 위한 각각의 활동들을 주중에 펼치곤 한다. 결국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만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년 전 세월호가 침몰하며 어린 귀한 생명들이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른들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희생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에게는 10년보다 긴 인고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책임 회피에 급급한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용하여 권력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요즘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 가볍게 언급되고 남발되다보니, 어느덧 참사랑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포장지는 엄정

화려한데 내용은 별 볼일 없는 싸구려 선물 같아졌습니다.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편에서 서서 그들과 함께 읊시다 (롬12:15).

이 아픔이 우리 가슴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인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확인된 사망자가 6천명을 넘어섰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거주하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신음소리와 가족을 찾는 울음소리로 가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있을

생존자들을 구조하려는 노력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며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네팔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부상자들을 수술할 외과의사가 급히 필요하고, 헌혈, 의약품뿐만 아니라 생필품까지 모두 바닥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통당하는 네팔 지진 희생자 가족들과 이재민을 돕는 데 교회가 앞장 서야 할 때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그들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 정치-교리적 전쟁 틈새, 강제 or 교묘하게 세력 확산

(2면에서 계속)

이 조치는 표면상, 특히 7세기에 아주 공정한 것이었다. 담미는 특별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이슬람법 아래에서 거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다른 이교도 아랍인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강요도 받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자기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세금이야 어차피 늘 부담해왔던 것이고, 이슬람 당국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치열한 교리 다툼에는 개

입하지 않았다. 네스토리우스파 종대주교는 동료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썼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공격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고 우리 사제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수도원에 유익을 주었습니다.”

불행히도, 7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마르 협정에 숨어 있는 심각한 위협 요소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슬람의 관용을 옹호하는 현대의 논쟁자들도 대개 이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 사실상 보호를 받는 담미라는 지위는 무슬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서열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러한 조치는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종교를 서서히 침식해 들어갔다.

동쪽(비잔틴)과 서쪽(로마)의 기독교 권력 모두 자기네 종교가 진정한 종교로 여겨지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긴 했지만, 7세기 또는 그 이후 몇 세기 동안은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사실,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기존 기독교 국가 법령들을 차용했다. 그들이 페르시아의, 일종의 게토인 멜렛(Melet, 제국의 소수파를 통제하는 지위에 두었지만 제국의 일반 문제로부터는 격리시켰다) 제도를 지

침으로 삼았다는 보고는 별로 없다. 여러 시기에 특히 비교적 세속적인 칼리프 아래서, 이슬람 정권들은 기독교 정권들보다 많은 종교적 관용을, 특히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다. 하지만 꾸란도, 이슬람법도 현대적인 관용에 비근한 근본적인 평등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꾸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종교에 강요란 있을 수 없다”(2:258). 그렇지만 꾸란은 또 이렇게 요구한다. “알라와 종말의 날을 믿지 아니하며, 알라와 사도가 급한 것을 금하지 않고, 참된 종교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비록 그들이 경전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세금을 지불할 때까지 싸우라”(9:29).

따라서 우마르의 협정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승리자의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라 이 협정은 알라가 급한 것(모든 주)을 금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무슬림의 우월성을 성문화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비하했다.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조항들도 비무슬림 공동체들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담미는 군복무에서 면제됐는데, 이것은 군인들이 받는 높은 특별수당이나 전리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마르의 협정은 담미를 마왈리(mawali) 아래 두었다. 마왈리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아랍인들로 이들은 일부 특권에서는 배제됐지만 군

복무는 할 수 있었다.

개종을 하면 틀림없이 보상을 받았지만, 이슬람 통치 초기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대부분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결국 모두 사라졌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예배 처소를 마련할 수도 없었고 옛 처소를 보수할 수도 없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금지됐다. 그리고 담미 남성에게는 같은 신분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만 허용됐지만, 이슬람 남성에게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도 허용됐다. (그리고 그 자녀는 무슬림으로 키웠다) 이슬람교는 이렇게 장악해 나갔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1. 졸업 논문 발표  
일시: 2015년 5월 7일(목) 오전 9시
- 2. 졸업 사은회  
일시: 2015년 5월 7일(목) 오후 6시
- 3. 졸업식 리허설  
일시: 2015년 5월 8일(금) 오전 8시 30분
- 4. 총장주관 만찬  
일시: 2015년 5월 8일(금) 정오
- 5. 졸업식  
일시: 2015년 5월 9일(토) 오전 9시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나눔의 주인공들

성경은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생각해볼수록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 바로 갈대, 특별히 '상한 갈대'라는 말이다. 갈대는 어디서든지 습기만 있는 곳이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번식력이 강한 식물이다. 그러나 작은 바람 앞에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마는 것이 갈대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는 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주님이 갈

대를 보시듯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갈대 중에도 특별히 상한 갈대로 보고 계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은 가장 상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만큼 상하기 쉬운 존재가 없다. 그저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우리 인생은 꺾이기 쉬운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다. 한번은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는데 그만 소개를 받으신

분이 상처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계신 분을 소개하면서 "이러이러한 분이신 데 참 귀한 분이 오셨다"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바로 그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을 소개할 때에는 그만 "귀한"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 그 심정을 바꾸어서 생각해볼까 저 같았어도 상처 받았을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상하기 쉬운 존재이다. 미국 내에 있는 병원의 환자들 65% 이상이 Stress relating disease로 치료받고 있다고 한다. 위장병, 혈압에 심장병 같은 모두가 스트레스와 연결된 병들이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이미 상한 갈대들이다. 이미 상처가 심하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아무 것도 아닌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만 우리는 상처를 받고 분함을 느끼고 마고! 어떤 분은 상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 상한 갈대라고 말씀해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는 위로가 될

정도이다. 우선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많고 크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만나 결혼한 가정인데 평생을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만난 가정인데 어디 그렇게 사랑만 받고 위로만 받고 사는가? 가정에서 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큰가? 어느 부부는 그 마음이 편지를 못해서 거의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는 말을 하는데 그 남편은 남편대로 그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크겠나?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람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우리는 다 이미 상한 대로 상한 갈대들이다. 가정이 아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온갖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 영어 못한다는 그 이유하나 때문에 얼마나 눈치를 보이고 땀을 흘리는가? 뒤에서 비웃고 teasing을 당하고! 어떤 분은 6년 동안이나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은 몸살감기에 걸려서 쫓겨나고 3일 동안은 직장에 못나갔다. 그랬더니 그 수퍼바이저한

테 전화가 왔는데 무어라 하는가 하면 얼마나 아프냐? 묻지도 않고 You are fired. 회사 그만 두라는 것이다. 이만생활의 세파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의 자존심이 꺾이는 상처를 받는가? 가정 직장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을 면담해보면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다. 뚜껑을 열고 보면 우리는 누구나 가슴속에 비애와 슬픔과 탄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보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꺾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갈대임을 믿게 된다. 불타고 꺼져가는 것 같아도 불꽃같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갈대이다. 없어질 것 같아도 어디서든지 믿음의 습기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갈대처럼 오히려 상한 갈대들이 더 강한 신앙의 위력이 있는 것이다. 시편 147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심하고 꺾여보

고 상처받아본 분들이 가만히 보면 더 강하다. 아픔을 안다. 아픔을 견디고 일어난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일으킨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이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승리가 있다. 모세도 상한 갈대였다. 다윗도 상처투성이였다. 베드로도, 마태도, 간음하다 불잡힌 여인도 다 상한 갈대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벽들을 쪼개시고 상한 갈대를 엮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상자 구원의 방주들로 쓰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다 상한 갈대들이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힘들지만 서로 사랑으로 엮어지고 거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정을 질하고 결코 최악의 물에 빠져 침몰하지 않도록 서로를 띄우게 만들어 구원역사의 주역들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 푸 / 른 / 초 / 장

이성모 목사  
(의정부 은평교회)



성경적인 용서의 개념은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인데(27절), 탕감한다는 말은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인격적인 공격과 악한 말들과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당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 주기 위한 비유로서 결국 일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

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롬3:20) 라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주께서 은혜로

어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종이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자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그 동관이 나중에 갚겠다고 했지만 그 종은 그를 가두었습니다. 백 데나리온은 탕감 받은 일만 달란트의 60만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기 위해 그는 지금 동관에게 난폭하게 굴며,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단번에 용서하고... 그리고 있어 버릴 때 평생에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용서하기를 힘쓰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

셨습니다. 여기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은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복수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한히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제안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통용된 용서의 한계를 뛰어 넘는 파격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한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18:35)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사49:15-19). 이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은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영생을 선물하실 만큼 엄청난"이란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 용서의 삶

(마태복음 18:21-35)

1.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떤 임금에게 일만 달란트를 빚진 종과 같습니다. 일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금(金) 3천 달란트를 준비했고(대상29:3-4),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금액이 120달란트였고(왕상10:10), 앗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 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던(왕하18:4), 사레들로 미루어볼 때 일만 달란트는 일 개인이 감당할 수

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야 하겠습니까. 2. 남을 용서하는 삶이 은혜를 갖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중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의인은 없

이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일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25절).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주인에게 자비를 구하는 길 밖에 아무것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27절).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빚을 그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 받고도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을 도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이거나 체험했다 할지라도 망각한 자일 것입니다. 결국 무자비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중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평

느니라'(마5:44, 46).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데 힘을 쓰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요8:11).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용서를 베풀어 나원의 축복을 허락하셨고(눅23:43), 주님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눅23:34).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

# 담임목사청빙

캔사스 시 지역에 위치한 캔사스 한인 연합장로교회(PCUSA)는 신실하고 성심있는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 자격요건

- 1. 목사 안수후 목회경력2년이상 되신분
- 2.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 하신 분
- 3. 미국 장로교[Presbyterian Church(USA)] 교단에 속하거나 또는 가입 가능한 자격을 갖춘 분
- 4. 이중언어(영어,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분

#### 제출서류

- 1. 국, 영문 이력서(가족사진) 각1통
- 2. 신앙고백서 국, 영문 각 1통
- 3. 최근 설교 CD 또는 DVD(영어, 한국어) 각 1편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5. 시민권 또는 영주권 또는 동등한 서류 사본 1부

• 모든 서류제출은 2015년 6월 30일로 마감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서류 보내실 곳

KUPCK. PNC  
4849 England Street  
Merriam, KS 66203

#### 연락처

청빙 위원장 황정호 장로  
913-220-7153 (jhhwang9011@yahoo.co.kr)  
청빙 위원회 총무 정공수 장로  
913-488-5455 (chung\_kks@yahoo.com)



캔사스 한인연합장로교회  
The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Kansas  
4849 England Street Merriam, KS 66203

#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를 모십니다

## 1.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

-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신 분
- 교사들을 지도해주실 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
-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lapc2@sbcglobal.net)이나 전화(323-954-884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Los Angeles Presbyterian Church)



# 디지털시대 언어 'coding', 초등학교부터 배운다!

## WSJ, 세상 절차 이해 위한 핵심기술 '코딩' 열풍 소개

지구촌의 인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초등학교들에게 '코딩(coding)'이란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코딩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컴퓨터 언어로 소프트웨어 등을 만드는 걸 말한다. 영국, 미국,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은 물론 중국과 인도도 이 같은 흐름에 합류하기로 손을 들었다. 한마디로 새로운 '학파'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영국과 미국은 이미 교육의 목표로 '읽기-쓰기-계산하기'에 이어 '코딩'을 필수 학문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사고 능력이라는 의미로 '컴퓨터식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를 강조한다. 컴퓨터식 사고에는 데이터를 모으고 조작하기, 문제를 구조화하고 추상화하기, 절차식 사고로 문제해결 자동화하기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즉 컴퓨터식 사고는 읽기, 쓰기, 계산하기처럼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능력으로 등장했다.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볼 때 자칫 인본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이 첨단과학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다음세대들에게 확고한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지만 한다면 첨단 기술 활용은 삶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교육에서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배워야 할 미래의 기초 학문으로 부상되고 있는 핵심 기술인 코딩의 열풍을 소개해준다(Why Coding Is Your Child's Key to Unlocking the Future: Educators call for making computer science a cornerstone of the curriculum, even for grade-school kids).

수업에 코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전문 훈련을 받는 교육자들 중에는 수학, 기술 교사들뿐 아니라 영어 교사들도 있다고 파르토비는 말한다. 레스닉 교수는 코딩이 어떤 의미에서는 글쓰기의 일종이라며, 다만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역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공립학교들은 이 추세에 느리게 반응하고 있다. 도노반의 학교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교들은 코딩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다. 파르토비는 이것이 발전을 막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다리기 싫은 부모들을 위해 집에서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는 추세다. 책 'Teach Your Kids to Code(아이에게 코딩을 가르치세요)'의 저자 브라이언 페인은 자신의 두 아들이 각각 2살, 4살일 때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접근법을 어린이들에게 바 이올린을 가르치기 위한 스즈키 교수법과 비교한다. 부모가 어린이 옆에서 함께 배우는 교수법이다.

태블릿은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조차 자연스러운 배움의 도구가 된다. 아이들에게 여러

비디오게임 '건넌 타코 트럭'을 만든 도노반 로메로-브래스웨이트(10)가 아버지 존 로메로와 함께 코딩 중이다. 타코 트럭을 타고 미국을 질주하면서 핵전쟁의 낙인으로 돌연변이가 된 동물들을 물리친다. 그리고 이 동물들을 타코에 넣을 맛있는 식재료로 만든 뒤 요새화된 마을에서 팔아야 한다. 목표는 캐나다 워니펙까지 가는 것. '건넌 타코 트럭(GTT)'의 내용이다.

30년 넘게 비디오게임을 디자인한 브렌다 로메로는 아들 도노반 로메로 브래스웨이트(10)가 만든



### 단계적 문제 해결 방법뿐 아니라 자신 표현 방법도 훈련 글쓰기 일종...상호작용 가능, 역동적 이야기 만들어 내기

건넌 타코 트럭을 두고 "어린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건넌 타코 트럭은 이미 맥, PC, iOS, 안드로이드의 비디오 게임을 내놓는 퍼블리셔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며 콘솔로도 발매 예정이다. 유명 비디오게임 디자이너인 아버지 존과 도노반이 토요일마다 프로그래밍 수업을 한 결과다.

부모가 둘 다 프로그래머인 도노반과 같은 상황은 흔치 않다. 하지만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들은 배우지 못했던 '코딩' 기술을 익히고 있다.

코딩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이들이 21세기에 직장을 얻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은 교육자들이 '절차적 활용 능력(procedural literacy)'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린이 친화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 개발을 이끌고 있는 마셜 레스닉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교수는 "코딩을 배우면 세상에 있

는 절차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스크래치에 등록된 사용자는 620만 명이며 5세 어린이부터 사용될 수 있다.

경제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거나 어떤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등 코딩은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훈련시키기에 적합하다고 레스닉 교수는 말한다.

코딩 교육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코드닷오알지(Code.org)'의 하디 파르토비 공동창립자는 "컴퓨터공학이 흥미로운 점은 분석적 기술,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기초적인 동시에 직업적인 요소들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 모두가 결합된 분야가 이것 말고 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글쓰기를 배우는 모든 어린이가 소설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수학을 배운 사람 모두가 수학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든 어린이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르토비나

레스닉 같은 교육자들은 코딩도 그와 같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미 노동통계국은 2020년까지 프로그래머가 100만 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파르토비는 이 추산이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스마트폰, 드론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감에 따라 인간이 점점 더 많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들수록 소프트웨어 관련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미래에 기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직업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코딩이 교양 과목의 일부가 될 것임을 인정하는 셈이며 따라서 코딩은 모든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핵심 기술이다.

'교양 과목'의 원래 정의는 시민 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천문학과 수학이 교양 과목으로 간주됐다.

울 수 있는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자아이들과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코드 인 더 스쿨'의 그레첸 르그랑은 어린 아이들이 '라이트봇' 같은 프로그래밍 게임을 쉽게 이해한다고 말한다.

코드닷오알지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코드스튜디오'는 이미 미국의 1-10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파르토비는 말한다. 그 학생들 중 43%가 여학생이며 47%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다. 코드스튜디오에 등록된 중학생 중 1%만 컴퓨터공학을 전공해도 이 분야를 졸업한 여성의 수가 3배 이상 많아진다고 파르토비는 덧붙였다.

도노반은 또래들의 교육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구체적 사례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는 레벨 설계, 미술 감독, 심지어 소매업까지 배우느라 너무 바빠다. 도노반의 건넌 타코 트럭에는 벌써 T셔츠 라인도 있기 때문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동성결혼을 허락한 미국의 여러 진보주의 교회는 왜 성경이 금하는 죄를 기어코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그리고 이에 대해 교회는 동성결혼과 동성결혼한 목사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비판해야 합니까?  
-플러튼에서 배 집사

**A:**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 문화권은 알버트 말러 총장의 말처럼 "동성애가 정상적인 생활 관습인 것 같은 이미지와 메시지로 용단 폭격을 가하며 무섭게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말도 안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동성애나 동성결혼의 논리가 이젠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져 미국에서 법적 지위까지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즉 종말론적인 영적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풀무 연기 같은 인본주의 악사상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황충이처럼

### 인권 앞세워 교회에도 침입한 동성애는 선악과 따먹는 행위

사람들을 쏘고 다녔는데 동성애 이론이 바로 종말의 풀무 연기같은 악사상입니다.

동성결혼을 용납하는 자유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강조하는 논리가 소위 human right(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웃을 돌보는 차원으로 기독교계와 교회가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람으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한다는 차원에서 성경을 재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수를 흐리는 사탄이 뿌린 가리지 이론입니다. '인권'이란 명목으로 기독교의 전통적인 결혼관을 밀어내면 성경은 솔직히 계속 밀려나고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동성결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서 서러는데 서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첫째, 레18:22과 레20:13 말씀은 동성애를 기증한(abomination)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 고전 6:9-10은 탐색하는 자(헬라어로 말라코이로사 동성애적 성교에서 수동적 역할 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헬라어로 아르세노코이타로 동성애 성행위에서 적극적인 역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우상숭배자와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벌에서 사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지옥행이라는 말입니다. 셋째,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면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벌써 '인권'에 맞추어 구약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나오는 동성애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달리 해석하고 시대 상황을 꽤 맞추어 성경도 결코 동성애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왜곡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교회가 동성결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행위입니다. 동성애 크리스천은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는 없는 단어이며 더군다나 동성애 목사라는 칭호는 사탄 교회에나 있는 단어입니다.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5년 5월 1일(금) ~ 12일(화)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gstcenter98@gmail.com

###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13일 (함동)동인교회 남부시절 재지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식목사) 19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민석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춘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전교회(박창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성명수련회(김지연목사) 9~11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김번대학교, 대학원 제물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버산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5~17일 은양강리교회(노광현목사) 21일 예우림교회(류병희목사) 25~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천마산기도원(윤광석목사)	3~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12일 나사렛성경교단 연합성회 (장소: 나사렛대학교) 17~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장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1~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라메트(LAMET)



라메트족은 라오스 북부지방의 원주민들이다. 이들은 안남산맥의 서쪽에 거주하는 라오 통(Lao Thung, "산허리의 라오스인")족과 관련되어 있다. 라오통족은 라오스 전체 인구의 1/4쯤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나, 라메트족은 약 15,000명에 이르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라메트족은 라오스 북서지방의 외딴 산악지대에 산재하여 마을을

형성해 생활한다. 이들은 때때로 라오 통족을 구하기 위하여 돈벌이되는 일을 구하려 저지대로 내려오기도 한다. 유감스럽게도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들 라메트족을 열등한 종족이라고 여기며, 때로는 "카"("kha", 노예)로 여기기도 한다. 일부 라메트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위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역적 미신을 사용한다.

라메트족은 몬-크메르 언어군에 속하는 라메트어를 사용하며, 이 라메트어는 팔라웅(Palaung)어와 와(Wa)어와 관련을 갖는다. 대부분의 남자 성인들은 타이 유안(Tai Yuan)어도 사용한다.

삶의 모습

라메트족 마을이 독립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이기는 하나, 완전히 고립되고 격리된 사회는 아니다.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적용되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관습은 거의 없다. 각 가정들은 대략 6-7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라메트족 가정에서 각 가족들의 역할은 명확히 정의되었다. 가정의 대표 남자 어른은 마을 회의에 참석하며 가족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라메트족의 가옥은 나무나 대나무 터미로 지어지며, 부엌이 집안에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 중심에 남성들의 공공가옥(common house)이나 모임 장소가 있다.

결혼 후에, 신혼부부는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살며 신부의 아버지를 위해 일을 하여 신랑이 신부집

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상을 모두 마치면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구성하거나 신랑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마을에 빈부간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빈부차이는 마을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마을의 수장이나 포반(pho ban)은 마을과 라오스 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수장들은 그들이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라메트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렘(lem)"이나 부자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몰소, 종, 청동 북을 가져야만 하고 기존의 렘(le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마을의 렘은 분쟁을 중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라메트족은 농업과 사냥에 종사

한다. 농부들은 화전법을 사용한다. 주된 농작물은 쌀이다. 라오족 및 타이족과 연장, 옷, 도자기 등과 같은 물건들을 서로 매매하기도 한다.

신앙

기본적으로 라메트족은 정령숭배자들이다. 라메트족들은 이러한 영혼들을 "피(phi)"라고 부른다. 이들은 피(phi)가 어디에나 살고 있으며 선과 악 모두를 일으키게 한다고 믿는다. 또한 라메트족은 조상숭배자이다. 조상의 영혼들이 가정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메트족에게 조상의 영혼은 매우 중요하다.

라메트족은 다양한 종교적 축전과 마을 의식을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혹은 세미아(xemia)가 이러한 의식과 축전 등을 지휘하며 마을 영

혼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일을 책임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메트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거친 지형을 지니고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라메트족과 교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지역은 또한 여러 내전과 국제전의 전쟁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전쟁들은 라메트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왔다. 이 소중한 라메트족 사람들은 진리와 내적 평화를 참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라메트족은 문자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성경이 이들의 모국어로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라메트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이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기도가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네팔지진, 생후 4개월 아기 22시간 만에 구조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네팔 지진 잔해더미에서 22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CNN과 카트만두투데이 등이 30일 보도했다. 시암 아말의 4개월 된 아기 소닛은 지난 25일 지진 발생 당시 카트만두 동쪽 바크타푸르의 집이 붕괴되면서 잔해에 깔려 갇혔다.



아버지 시암은 아기를 찾아 미친 듯이 건물 잔해를 뒤졌지만 좀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절망에 빠진 시암은 군에 도움을 요청했다. 군인들이 총동원해 밤 12시까지 건물 잔해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기를 찾지 못한 채 철수했다.

시암이 희망을 거의 포기했을 즈음 잔해 속에서 희미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튿날 아침 군인들이 다시 출동해 커다란 돌덩이와 기둥, 벽돌을 들어올리고 흙먼지를 파헤친 뒤 아기를 구조해냈다.

군인들이 햇빛을 향해 아기를 높이 들어올렸을 때 그의 두 눈은 감겨 있었다. 모자가 달린 상의를 입고 강보에 감싸여 있어 추운 밤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얼굴은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였다.

소닛은 구조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다. 놀랍게도 전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닛의 구조 소식은 엄청난 재앙으로 절망 속으로 빠져들던 네팔에 한 줄기 희망을 안겼다.

카트만두투데이에 게재된 구조 장면 사진 13장은 이번 참사로 인한 고통과 이를 이겨내려는 네팔인들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으로 떠올랐다.

북한, 14년째 세계 최악 종교탄압국에 선정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종교탄압국 중 하나로 다시 지목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5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올해로 14년째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자유아시아아시아(RFA) 방송이 전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서 "숨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때로는 처형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을 체제 위협 세력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출잡이 수만명의 기독교인들이 현재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김정욱 선교사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북한 주민 33명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특별우려국' 권고 대상에는 북한과 함께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들 9개 국가를 종교 탄압과 관련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제정된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전 세계 종교 자유 우려국을 대상으로 연례 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국무부에 세계 종교자유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솔로몬 작전의 옛 환호는 어디로...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패망한 뒤 일부가 아프리카로 건너가 현재의 에티오피아 땅에 자리잡았다는 전설이 있다. 그 전설대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유대교의 핵심 의식들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발견됐다. 이른바 '베타 이스라엘' 또는 '팔라샤이민 간 사람들'로 불리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다.



아랍 국가들에 맞서 전 세계 유대인들의 단결을 호소하던 이스라엘은 1991년 5월 '솔로몬 작전'을 감행

한다. 바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자국 내로 비밀리에 수송하는 작전이었다. 36시간 동안 34대의 수송기를 동원해 1만4000명의 유대인을 데려왔다. 공항에서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렸고, 에티오피아 독재 정권하에서 동포를 구해내 '현대판 출애굽기'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1982-84년에도 1만40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수단을 거쳐 빠져나와 이 중 8000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정착했다.

솔로몬 작전 이후 24년이 흐른 지난 3일 에티오피아 유대인 수천명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인종 차별을 하지 말라며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텔아비브 시청사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저지했다고 밝혔다. 영국 BBC방송과 미국 뉴욕타임스 등이 4일 전했다. 시위로 26명이 체포되고 수십명이 다쳤다. 경찰관 20명도 부상했다.

이 시위는 최근 이스라엘 경찰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흑인 다마스 파케데를 과도하게 제압하는 영상이 지난달 26일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파케데가 경찰 통제구역에 지나가려다 체포당한 뒤 경찰 2명에게 심하게 맞는 장면이 찍혔다.

이번 시위는 이스라엘 내 13만50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티오피아 출신들은 직장 내 차별과 함께 교육 기회도 적어 이주한 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주류사회로 거의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태 확산을 우려해 이날 에티오피아 유대인 대표 등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총살당한 호주 마약사범들, 교도소서 회심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에서 총살형을 당한 8명의 마약사범은 교도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던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형 집행 직전 손을 잡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송축해 내 영혼' 등을 찬송했다. 3일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이들 가운데 호주 출신 앤드류 찬과 뮌 수쿠마란은 할송교회의 브라이언 휴



스턴 목사에게도 영감을 주었을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도했다.

휴스턴牧사는 "이들은 예수께 죄를 용서 받았을 뿐 아니라 정직했다"며 "사회에 진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휴스턴牧사는 수년 간 이들과 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찬은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또 믿음과 인내를 보여주며 나를 감동시켰다"고 말했다고 CT는 전했다.

찬은 교도소 안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지난 2월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 그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 마가복음 11장 23-24절을 읽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살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던 중 "나는 (죄에서) 너를 자유롭게 했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는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

호주성서공회에도 따르면 그는 독방에서 신앙성경을 네 번 통독한 후 기독교인이 됐다. 회심 후 6년간 신학공부를 했으며 교도소 내 성경학교에서 가르쳤다. 또 청소년을 위한 마약 예방 다큐멘터리 기획에도 참여하는 등 모범수로 살았다. 사형집행 이틀 전에는 교도소 여전도사였던 페브안티 허레릴라 목사와 결혼하기도 했다.

'글로벌텔레뉴스'는 수쿠마란과 교제했던 선교사의 말을 인용, "찬과 수쿠마란은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미술활동 등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희망을 전했다"고 회고했다.

마약밀수조직인 '발리 나인'의 책임자였던 찬과 수쿠마란은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호주로 8.2kg이 넘는 헤로인을 밀반출하려다 체포됐다. 호주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집행 중지를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힐러리 "종교계, 낙태관련 변화 받아들여야"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제 6회 '우먼 인 월드 서밋' 행사 중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종교계들이 낙태를 허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8면으로 계속)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bookskorea@gmail.com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7)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교회 - 교부 (1)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교회에게 이 사실을 매우 상세히 가르쳐주셨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주요 인물들도 이와 유사한 이름을 부여한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교부'(敎父, Church Fathers)라는 호칭이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빼앗은 것일까? 현재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직자에게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신부'(神父, Father)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교부'와는 어떤 관계일까?

문이다. 아버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른이다. 가족을 위해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동시에 매사를 책임져야하는 의무감으로 인해 항상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맡기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이다. 사도들은 최선을 다해 그 교회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이 선배들의 사역을 계승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신앙을 키운 인물들이다. 직접 예수를 통해 교육을 받았던 사도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선배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남긴 글을 통하여 계속 배워가며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연속성과 일치성을 도모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속사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남긴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교리적 전통을 세우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교부들의 의견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수많은 교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일까? 물론 성 어거스틴(354-430)일 것이다. 그는 교부들의 사상을 집대성하였을 뿐 아니라, 중세 시대와 그 후 교회를 위해 놀라운 교리적 유산을 남

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후대 교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한 지도자들 가운데 몇 가지 기준을 정하였다.

첫째, 교부들은 교리에 정통한 자들이었다. 기독교 교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미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아 구속사적 관점에서 교리적 체계를 잡아 후대 교회에

둘째, 교부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 신앙심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있다. 교회가 지도자들에게 기대하였던 것은 신학적으로 명료하고 분명한 사상 이상이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타인에게 모범되어 인정을 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일부 교부들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명예 이외에도 성 어거스틴과 같이 '성자' 즉 거룩한 사람'이란 칭호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셋째, 교부들은 자신이 아닌 교회가 그들의 권위를 부여하였던 자들이었다. 사도의 권위는 예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교회는 성령의 지배 하에서 지도자들은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부들은 어떤 남다른 능력이나 권세를 누린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크게 공헌을 한 자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교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대에 분명하게 살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의 글에 나타난 교리적이며 신앙적 고민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중심이 되었던 논지를 드러낸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 자체와 그 성경을 해석했던 앞선 시대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였다. 거짓 교사와 새로운 해석이 불려오는 혼동에 대하여 정통교리를 상황에 맞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글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9면으로 계속)

## 교회 영적지도자 '교부', 4C 시작... 한때 활동하고 사라져 '영적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의 아버지'와는 근본적 차이

근거하여 교회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도들을 인도하였다. 사도들은 '교회의 아버지'였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절, 주님께서 부여하신 막중한 책임감을 영적 권위와 겸손한 섬김으로 잘 감당하였다. 적어도 1세기 말까지는 이런 전통이 계속되었다. 이 기간에 성경이 기록되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후가 문제였다.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할 교회의 지도자, 즉 '교회의 아버지'가 필요하였다.

1세기가 끝날 무렵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자신들이 "나는 교부다!" "나는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하였을까? 아니다. 약 4세기가 되어서 교회가 과거에 교회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 '교부'라고 불렀다. 교부는 이미 설명한 '속사도 교부' 이외에도 '변증가', '헬라 교부', 그리고 '라틴 교부' 등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부들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300년대부터 450년대를 황금기를, 그 후 7-8세기까지는 쇠퇴기를 맞았다.

겨주었다. 21세기 교회가 그가 남겨준 아름다운 전통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 ■ 교부들의 삶과 사상

교부들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너무 오래전에 활동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내려온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그들의 삶과 사상을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들은 한 시대를 살면서 그 당

념겨주었다. 그 후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 전통으로 만들었다. 교부들이 후대에 알려준 것은 주로 그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이다. 그들 가운데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과 심지어 이단의 가르침을 고집하다가 정죄를 당한 자들도 있었다. 교부들은 먼저 교회가 지켜온 전통교리를 수용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그들의 삶과 사상을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들은 한 시대를 살면서 그 당

### 1) 교회역사를 보면...

#### ■ 교회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육적 아버지'가 있다. 만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 때

## 가정사역 칼럼



### 이혼의 6단계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대인관계에서의 고귀한 결말이 있고 통곡하는 의식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성도나 가족들로부터 대단한 후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에 교인들로부터 어떠한 후원도 받지 못하며 어떤 통곡하는 의식도 없다. 이혼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 배우자와 법적 소속 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

다. 배우자의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이혼에서는 관계의 죽음이 있을 뿐이며 그러한 죽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조용히 진행된다.

얼핏 이혼은 이혼이지 무엇 별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혼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바하난 씨(Bahannan, 1970)가 언급한 이혼의 6가지 단계가 도움이 된

다. 모든 이혼하는 사람들이 같은 순서나 같은 정도의 단계를 경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여섯 가지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과정과 단계들뿐만 아니라 이혼이 부부 또는 주변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스트레스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 1. 감정적인 이혼(The Emotional Divorce)

감정적인 이혼은 현 배우자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완전히 상실하는 결과에 이른다. 이러한 감정은 별거 전에 시작되어 그 후에도 한동안 계속된다.

#### 2. 법적 이혼(The Legal Divorce)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는 아마도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의 이혼을 계획하고,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기로 결정할 것이다. 별거의 기간은 심각한 붕괴의 단계이다. 가족 전체는 규칙, 역할, 기준 그리고 경계에 관한 대항의 재조정을 겪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관계된 사람들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감정적인 지원을 받을 지도 모르고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는 그들의 친구들과 심지어 교회와 교

인들을 적이나 아군으로 인지하지도 모른다. 이 단계는 상담자나 목회자 그리고 변호사와 같은 명백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 3. 경제적 이혼(The Economic Divorce)

부부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실업자 스스로 직장을 구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일로 직장을 찾는 이 기간 동안 도와 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순간이므로 누가 자동차, 집, 오디오, 애완동물 등을 가질 것인지에 관한 결정들이 이 단계 동안 이루어진다. 별거수당, 자녀 지원금 그리고 공유재산들을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고, 정당 또는 법정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한다. 몇

몇 부분들은 재산과 재정적인 책임의 분배에 동의할 수도 있었지만, 그 외 사람들은 분개, 적개심, 복수의 감정들이 공정한 해결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재정적인 영역에서의 재구성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혼의 현실들을 더욱 더 깨닫게 한다.

#### 4. 공동 부모역할에 있어서의 이혼(The Co-Parental Divorce)

공동 부모 역할 이혼은 독립된 주거가 확립될 때 필요로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녀양육권과 관련이 있다.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다. '공동양육'이라는 말은 부모가 서로 이혼했지만 그들의 자녀들과는 헤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9면으로 계속)

#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저자: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판매)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 달 주 소	_____		
전화/Fax	( ) ( )	_____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_____	
배 달 주 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회중을 예배에 몰입하게 하라!

## CT, '찬양 인도자, 공연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전문가 3인의 조언 소개 (하)

찬양인도자의 목적이자, 가장 큰 '유혹'이며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는, '회중이 예배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음 악적인 것이든, 예배 전의 강력한(?) 기도이든, 심지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든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일단 찬양 인도의 자리에 서면 그 목적을 의식하지 않기로 힘든 일이다. 그렇지 않았다 해도 예배를 마친 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의식되기 마련이고, 앞서 언급한 자신의 방법론대로 예배에 임했는지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교만했음을 회개하기도 하고 반대로 겸손하게 잘 예배한 자신을 보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론을 취했든지 피하기 힘든 생각은, '자신의 노력이 회중을 예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드는 착각, 그것이다. 따라서 찬양 인도가 아닌 공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리스치니티투데이에는 실제로 찬양을 인도하거나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의견을 통해, 찬양 인도자가 공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제언을 하고 있다(Can Worship Leaders and Musicians Resist the Temptation to 'Perform'? : Three views on how to keep church services from becoming like American Idol).

### 음악적 모험을 하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강력한 유혹에 맞서 싸우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전서 5:8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위에 있는 악에 맞서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고한다. 깨어있고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내부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리와 사회 환경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예배 인도자이자 뮤지션으로서 우리는 예배를 인도할 때 "공연"을



는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음악과 예배가 지역 교회의 맥락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대중 인 기도예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의 회중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노래와 양식과 메시지를 가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더 많은 음악적 모험을 시도하라.

실험하라. 우리가 고정된 음악 양식—팝록이든, 가스펠이든, 오르간 연주 찬송이든—만 고집할 때, 우리의 능력만을 믿기 쉽다. 우리가 마스

## 지역교회 회중 바로 세울 노래와 양식과 메시지 가꾸도록 노력 다양한 음악과 예배 전통의 깊이와 폭에서 배울 자양분 얻도록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회중을 예배로 인도하는 것과 군중에게 유희와 즐거움을 주는 것을 혼동할 때 우리는 "공연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기 몇 가지 출발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다.

### 1. 당신이 말하는 것을 살피라.

예배 인도자와 뮤지션은 우리가 회중에게 전달하는 방식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과 노랫말은 우리가 전달하는 많은 방식들 가운데 그저 두 가지일 뿐이다. 우리의 구두 메시지는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허공을 울릴 수도 있다. 우리의 회중

이 찬양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전부가 대형 스크린에 비친, 한껏 조명을 받은 뮤지션의 얼굴뿐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예배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수 있을까?

### 2.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공연주의는 성도의 참여보다 미적 수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많은 집회가 모인 사람들의 소리를 받쳐주기보다는 지배하는 "완벽한" 사운드 벽을 만들려고 애쓴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는 주일 아침 찬양보다 훨씬 더 크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하

는 강력한 상징이다. 성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들이 의미 있게 예배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음악 인도자로서 우리는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자세를 내려놓고 회중의 목소리를 풍성하게 해주기 위한 창조적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 3. 시대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

공연주의는 인도자들이 특정한 예술적 또는 음악적 기대들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자주 발생한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교회와 기독교 미디어 산업에서 나온 모델들을 채택하려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

터한 음악 스타일이 유일하다는 이상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 새로운 영감의 원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보물들을 발견해야 하고, 다른 세상의 음악 전통들도 탐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음악과 예배 전통들의 깊이와 폭으로부터 우리는 자양분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끊임 없이 배우고 성장한다면 공연주의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니크 M. 잉갈스(Monique M. Ingalls)는 곧 나올 찬양 메거진(The Spirit of Praise)의 공동편집자이며 베일러대학교 음악과 부교수이다.

### (6면에서 계속)

이미 지난 2008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에서 낙태 옹호에 입장을 밝힌 힐러리는 "많은 여성들이 성적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한 낙태시설에 접근하는 것

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종교적 관습을 품고 있는 미국 문화는 이제 낙태에 관한 변화를 받아들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했다. 관습적인 문화적 성향, 종교적 믿음, 구조적인 것들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

장했다. 미국은 대부분 낙태에 반대하는 주가 많으나 보험으로 낙태비용을 지원해주는 법안을 상정시키기는 워싱턴 주와 같이 낙태에 관대한 주도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현재 유력한 민주당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귀족 정치인 이미지를 벗고 중산층을 보듬으며 미래 세대인 젊은 유권자층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미움 받을 용기로 나를 사랑하기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말이 왜 많은 독자들을 열광시켰을까? "미움 받을 용기"와 더불어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lder, 1870-1937)의 심리학 열풍이 불고 있다. '어느 정도는 미움 받고 살아도 된다'는 아들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상처받고 지친 현대인의 심리적 요구(Needs)와 맞아 떨어졌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학교, 군대,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이 정도는 이뤄야지, 갖춰야지'라는 성공기준에 맞춰 가느다리고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과 상처 같은 부정적 감정만 남겼다.

기쁨의 성품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기뻐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움 받을 용기'에서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뿐이므로 남의 기준이나 평가에 행복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된다.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팔다리가 없더니, 넌 괴물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며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낸 여인이 있다. 영국의 구족화가 엘리슨 래퍼다. 그녀는 팔다리가 기형인 질병을 안고 태어나 생후 6주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으며 10대 시절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골방에 틀어박혀 지내면 그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더욱 나를 외롭게 만드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하지 말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팔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미술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입과 발로 붓을 잡은 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편한 의수와 의족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장애를 가진 몸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낸 그녀의 작품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임신 9개월째 그녀는 한 조각가의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 완성된 조각상은 영국 공모전에 입상하고 트라팔가 광장에 세워져 장애를 가진 몸도 얼마든지 아름답다는 것을 드러냈다. 결국 그녀는 장애의 편견과 금기를 깬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아 2005년 세계 여성성(Women's World Awards) 여성 성취상을 수상했다.

엘리슨 래퍼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다. 미움 받을 용기로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에 항상 기쁨이 넘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 평가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간다.

오늘 잠깐 시간을 내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 미움 받지 않기 위해 힘겨워하고 아파한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칠 것이다. 기쁨, 곧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임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더욱 좋은 성품의 리더로 완성될 수 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 39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39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9회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예약일정표 등록에 관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시: **주후 2015년 5월 19(화) - 5월 22(금)** / 3박 4일
- 장 소: **Viale Hotel (Iguazu Airport, Brazil)** <http://www.vialehotels.com.br>  
Av. das Cataratas, 2420. Foz do Iguacu Parana Brazil Phone: 55-45-2105-7200
- 등록비: 총회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미화 USD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일까지)	2차(3월 1일까지)	3차(4월 1일까지)
2인1실(1인당)	\$ 390	\$ 440	\$ 465
1인1실	\$ 750	\$ 800	\$ 825
부부	\$ 750	\$ 800	\$ 825

\* 이곳 물가 사정상 지원금 사정이 미약함을 양해바랍니다.

- 개인숙식: 개인적으로 숙식을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등록비 \$ 130 를 납부하셔야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식비 \$ 170를 납부하시거나 식권을 구매하여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및 송금안내: 송금은 미국 은행의 수표 혹은 Money order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표의 Memo란에 반드시 참가하시는 분의 성함을 기재하셔서 등록서와 함께 우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Payable to : Rev. Jung Yon Jung  
\* 보낼 주소 : Rev. Jung Yon Jung (112 Polo Dr. North Wales, PA 19454 USA)

- 교통안내:
  - 총회장소인 Viale Hotel에 오시기 위해서 총대분들께서는 반드시 브라질 이과수 국제공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항은 차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공항 셔틀버스를 별도 계약해서 30분 간격으로 운영하오니 이용바랍니다. (셔틀버스 이름 : 추후공지)  
전화문의: Viale Hotel (55-45-2105-7200), 김진원 목사 (54911)6757-7649
- 접수: 총회 첫날 접수는 오후 2:00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00부터, 그리고 개회예배는 오후 7:00에 드립니다.
  - 등록마감일(4월 1일) 이후 신청시 호텔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 환불은 안 됩니다.
-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등록: 백진국 목사 (5959)8242-0023 총무: 박성훈 목사 (54911)6051-6832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정관일목사 서기 최동진목사  
총회준비위원장 왕익상 목사 김지문목사**

# PCA-CKC 신임회장에 방덕수 목사

## 제18차 총회 및 수련회, 집회강사에 권준 목사

PCA-CKC(회장 민경엽 목사)는 제18차 PCA-CKC 총회 및 수련회 2015를 '교회여,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와 풀러튼 뉴라이프 선교교회(담임 박영배 목사)에서 개최했다.

셋째 날 열린 총회에서 부회장 방덕수 목사(남부노회/성산교회)가



제18차 PCA-CKC총회 및 수련회가 나침반교회와 풀러튼 뉴라이프선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첫날 개회예배후에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이번총회는 PCA 산하 9개의 한인노회에서 참석했으며 첫날 개회예배와 환영만찬, 그리고 저녁집회와 마지막 날 폐회예배를 뉴라이프선교회에서 열렸으며, 둘째 날과

셋째 날 일정은 나침반교회에서 소화했다. 집회 강사로는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 담임)가 초청돼 강의를 인도했으며, 사모세미나와 EM 포럼도 함께 열렸다. (박준호 기자)

# UTD-KCC 통곡기도회 기도행진

## 13일 달라스 시작으로 9월말 LA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기독교인들이 분단 70년이 된 2015년 통일을 기원하며 기도 행진을 벌인다.

통곡기도회 일정은 13일 달라스 빛내리교회, 20일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 29일 애틀랜타 베다니장로교회, 7월 15일 워싱턴중앙장로교회, 7월 19일 콜로라도 덴버장로교회, 9월 16일 뉴욕 프로미스교회, 9월말 LA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UTD-KCC(공동대표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김인식 목사, 손인식 목사, 송기성 목사, 임창호 목사)는 미국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시드니 호주와 도쿄, 그리고 11월에는 프랑스 파리 통곡기도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송정명 목사는 "역사적으로 동서독의 통일문제를 조명해와야 한다. 80년대 후반 유럽의 정치가들 중 통일을 예상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82년 니콜라이교회 목사가 통독 문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 독일통일이란 열매를 맺게 됐다. 북한문제 역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



UTD-KCC가 주관하는 통곡기도회 기도행진이 오는 13일 달라스부터 9월말 LA주님의영광교회까지 열린다

좌를 흐르는 기도로 이어질 때 통일이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말했다.

박희민 목사는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이 시대 가장 큰 과제요 사명이다. 금년이 70주년이 되는 해다.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게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교계가 하나 돼 기도운동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UTD-KCC는 그간 탈북자 구출단체 지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지원,

북한인권 위한 비영리 기구 지원,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세미나 지원 등 다양한 통일 활동을 도왔다.

2015년 통곡기도대회 일정은 △5월13일 달라스 빛내리교회 △20일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 △29일 애틀랜타 베다니장로교회 △7월15일 워싱턴중앙장로교회 △19일 덴버장로교회 △9월16일 뉴욕 프로미스교회 △9월말 LA 주님의영광교회 등이다.

▲문의: (949)297-3788



벤처카운티 교역자협의회 주관 제5회 벤츄라카운티 교회대항 족구 대회가 벤츄라지역 6개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은 청년팀 우승을 차지한 새생명교회 멤버들

# 제 5회 벤츄라카운티 교회대항 족구대회

## 장년-웨스트레이크교회, 청년부-새생명교회 우승

벤처카운티 교역자협의회 주관 제5회 벤츄라카운티 교회대항 족구 대회가 지난달 26일 오후 3시부터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

렸다. 이번 대회는 카운티 내 6개 교회(벤처라감리교회, 새생명교회, 시미벨리교회,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웨스트레이크교회, 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에서 11개 팀이 참석하고 각 교회에서 응원을 하기 위해 20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다.

55세 이상은 장년으로 구성된 5개 팀과 55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6개 팀이 참여했고, 예선전과 결승전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장년팀 우승은 웨스트레이크교회(담임 오정택 목사), 청년팀 우승은 새생명교회(담임 송광철 목사)가 차지했다. 우승팀에게 부상을 주는 대신 알뜰 행사로 준비한 쌀(15 Lb)을 각 교회별로 6포대씩 나누어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음악회를 마치고 연합 합창단과 우크라이나 선교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 "20년 뿌려진 작은 씨앗이 자라..."

## 미주우크라이나선교회 주최 선교음악회

미주우크라이나선교회(회장 한의준 목사) 주최 우크라이나 선교음악회가 3일 오후 6시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선교음악회, 3부 폐회로 진행됐다.

한의준 목사는 환영사에서 "20여

년 전 최영민 선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뿌려진 겨자씨와 같은 작은 선교의 씨앗이 자라 어느덧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현지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역의 열매를 맺게 됐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곳곳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곳에서 열심

히 복음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선교, 생명을 살리는 선교에 많은 후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근 목사(주사랑선교회 담임) 사모로 시작된 선교음악회는 남가주주님의교회 호산나성가대, LA 레이디스싱어스(지휘 이종현 집사), 소노로스 싱어즈, 바리톤 장상근, 보치엘레스티, KAM코랄(지휘 이수정 집사)과 오토하프연주자 최용순 씨가 출연해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했다.

연주회 전에 드린 예배는 회장 한의준 목사가 환영사를 했으며, 최영민 선교사가 선교이야기를,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 미주복음방송 사장)가 축사했으며, 총무 박명석 목사가 기도했다.

이날 행사는 모든 출연자들이 연합합창으로 '어제 날 위함이온지'를 부른 후 최영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풀러신학교가 주최한 제1회 풀러포럼에서 주강사로 나선 월터 브루그만 박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하나님의 선교에 나타난...' 제 1회 풀러포럼

## 풀러신학교 주최, 주강사 월터 브루그만 박사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가 주최한 제 1회 풀러 포럼이 '하나님의 선교에 나타난 정의, 은혜, 그리고 율법'이라는 주제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레이크에비뉴교회(담임 그레이 웨이브라이트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구약학자중 한사람인 월터 브루그만 박사(콜롬비아 신학교의 윌리엄 마르셀루스 맥피터스 구약학 명예교수)가 주강사로 나서 강의 인도했다. 브루그만 박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치, 사회경제뿐만 아니

라 사법적인 지평에서 있어서도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은혜와 정의, 율법간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료한 통찰을 제시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정의, 은혜와 율법을 상호 배타적으로 바라봤으며, 교회와 사회는 이러한 점에 대한 혼동 속에 있다"고 언급하며 "정의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것이다. 올바른 삶은 은혜와 율법 둘 다를 요구하며, 은혜와 율법은 대립하기보다는 '은혜를 통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고 주장했다.

브루그만 박사는 이번 풀러 포럼을 통해 최근 퍼거슨(Ferguson) 사건과 불티모어 사태, IS 세력의 급부상, 미국 사법시스템의 상업화와 은혜와 율법 관계에 대한 혼동 속에서 '정의와 은혜, 율법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심리학적 통찰'을 제공했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청소년연합집회 'My Battle Cry Conference'에서 케빈수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My Battle Cry Conference'

## 주님의영광교회 청소년연합집회 8개 교회 참여

# 가정사역 토크

(7면에서 계속)

어른들은 다른 사람과 이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녀에게 표현되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많은 어린이들은 그들이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헤어졌다고 느끼고 있다.

이혼 절차는 부모가 그것을 하기 원하는 만큼이나 어린이들에게 쉽거나 어려울 수 있다. 부모에 의한 장래의 손실은 이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스러운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분노와 쓰라림을 조절해서 부모는 다른 부모에게 모든 비난을 돌림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그의 전 배우자를 비난함으로써 그는 자녀를 자기편으로 만든다. 상담자가 이혼하는 부모를 상담하기 전에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5. 공동체와의 이혼(The Communal Divorce)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만약 이혼한 사람이 부부를 위한 사회적 모임을 있었거나 교회 학교 교사부부였다면, 그는 지금 쉽게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교회에서 경건한 성도였거나 교회학교 교사였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을 이혼 전 그 자리에 계속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만두도록 해야 하는가? 아마도 무엇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인지와 무엇이 그 사람에게 최선인지 이것에 대해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식과 고독을 북돋아주는 또 다른 손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 6. 심리적 이혼(The Psychological Divorce)

이 단계에 있는 이혼한 사람은 자율적이 된다. 영향, 존재, 심지어 전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주최한 청소년 연합집회 'My Battle Cry Conference'가 지난 1일 오후 7시30분 개최됐다. 주님의영광교회 학생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집회는 케빈수터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집회는 LA사랑의교회, 하나교회 등 남가주 8개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집회가 열린 지 2주 만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이벤트를 가지기도 했다.

My Battle Cry Conference는 지난 2013년에 열린 호프리에이건의 3번째 집회 일환으로 열렸다.

(박준호 기자)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사도행전의 중심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면서 안디옥교회가 자주 등장한다.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찾아왔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방 도시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거나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 신약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난의 길이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안디옥은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로서 '동양의 여왕'이란 별명을 지닐 정도로 화려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많은 도시들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갖춘 도시였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피신한 성도들은 일단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정착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방 도시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헬라인들이었다. 참고적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신사건 이후이다. 그러므로 안디옥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성도들로 함께 구성되었다.

안디옥교회가 개척의 시기를 통과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예루살렘교회는 구브로 출신이었던 그를 파송하여 교회를 돕게 하였다. 바나바는 성경과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안디옥교회는 그의 성실한 사역을 통해 안정된 모습으로 성장하였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가 사도 바울과 동역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거주하던 다소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그래도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 만났다. 안디옥교회를 함께 섬기자고 부탁한 것이다.

바울은 회심과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이방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와 성경 연구를 하며 3년을 지낸 후에 계속 사역의 기회를 기다리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신 것이다. 향후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의 열매로 생긴 안디옥교회는 이방 기독교 세계의 모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두 사람의 협력

사역을 통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 성경이 보인다 - 빌립보서 2:22; 디도서 1:4; 베드로전서 5:13; 고린도전서 4:15; 데살로니가전서 2:11

성경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는 사도뿐 아니라 오고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다. 권위만을 내세우는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버지는 인내하며 사랑하며 회개하면서 가족을 책임진다. 이것은 '영적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교회의 아버지'로서의 교회 지도자와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교부들은 한 때 활동하고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은 오늘날에도 지속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충심으로 섬기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 '가정폭력의 위기, 교회의 역할'

## KFAM주최 제3회 한인목회자 컨퍼런스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니정조) 주최 제 3회 한인목회자 컨퍼런스가 '가정폭력의 위기, 교회의 역할'라는 주제로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든스윗 호텔에서 열렸다.

서철원 목사(KFAM 프로젝트 매니저)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이날 컨퍼런스는 제니퍼 오(KFAM 가정폭력 프로그램 매니저)가 '가정폭력의 전반적 이해'에 대해 강의했고, 손인식 목사(KCC 대표간사)가 '가정폭력의 위기, 교회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패널토의로 이어졌다. 패널로는 정 김 형사(LA경찰청 올림피아 지부 형사강력범죄 수사과), 다나 에드미스톤 검사(Family Violence Operations 디렉터), 조앤리 변호사(LA법률보조재단)가 참여했으며



KFAM주최 제3회 한인목회자 컨퍼런스가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렸다

이시연 교수(칼스테이트LA)가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정 김 형사는 가정폭력이 발

생했을 때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나 에드미스톤 검사는 가정폭력에 대한 케이스 검토 및 공

청회, 그리고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났을 때 해야 하는 것 등에 대해, 그리고 조앤리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권리와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정폭력 발생시 이민법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오히려 신분변호 및 신분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점심식사 후 이어진 목회자 패널토의는 임상심리학자 써니송 교수(탈북선학고 목회학박사과정 교수)의 진행으로 열렸으며,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박세현 목사(연수로교회), 김인철 목사(오렌지 가나안장로교회 담임), 이종태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 가정사역개발원 총괄 담당)가 나서 목회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해 나누었다.

이어 김찬희 교수(클레어몬트신학대학교 명예교수)가 소그룹토의를 인도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다니엘뉴먼 교수(아주사피사피대학교 한인목회학박사 프로그램 디렉터)의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이단대책 및 예방세미나

이단대책 및 예방세미나가 빅토밸리한인목사회(회장 백석영 목사) 주최로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헬렌데일일인선교교회(담임 고승경 목사/26468 National Trails Hwy, Helendale)에서 진행된다. 이날 강사는 한선희 목사(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이며 신천지(이만희), 다라방(류광수), 구원파(박옥수)를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760)646-6327, (213)484-2574

## "알기 쉬운 이야기 요한계시록" 세미나

CTS America(대표 김중철)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박공서 목사(새부전장로교회 담임)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이야기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개최된다. 5월 12일(화) 13일(수) 양일간에 걸쳐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광야를 통한 구속의 원리를 설명한 책인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짚어 줌으로써 평범한 일상 속의 영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목회자, 신학생 및 평신도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562)565-2234

## 미주예심전도대학 제11기생 모집

미주예심전도대학 제11기가 5월 12일(화) 오전 9시30분 남가주 빛나리교회(담임 목사)에서 개강한다. 목사, 사모, 전도사, 평신도 등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13주 과정으로 열리는 미주예심전도대학 과정의 등록비는 50달러다.

▲문의: (714)401-9874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가 월드미션대학교 찬양사역과 학생들의 무대에 열렸다. 사진은 그룹 K-Trinity의 공연 모습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마당축제가 27개 교회와 12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월드미션대와 공동

## K-Trinity, Jesus5, 허지에 출연

더텐트(대표 다니엘 방 목사)가 주최한 파킹랏콘서트가 2일 오후 7시30분 콘서트 장소인 거주영어학교 1층 주차장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월드미션대학교 찬양사역과 학생들의 무대로 꾸며졌다.

본교 재학생이자 그룹 K-Trinity 멤버인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씨가 진행자로 나선가운데 열린 공연은 K-Trinity(베이스 이병걸, 드럼 안병범, 건반 윤국형, 기타 제이든리)의 수준 높은 연주로 진행됐다. 공연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비롯 찬양곡들을 팝과 재즈 그리고 락 등 다양한 장르로 편곡해 연주했다.

K-Trinity 베이스를 담당한 이병걸 씨는 "이번 콘서트는 진행과 건반을 맡은 윤국형 씨와 함께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연주회로 마련됐다. 학교생활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단순히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닌 공연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여기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오디션 위대한탄생 출신 가수이자 본교재학생 허지에 씨와 본교재학생으로 구성된 보컬 그룹 지저스5(김준, 박준영, 박선민, 이찬영)가 출연했다.

이날 관객으로 참여한 크리스천 인디밴드 사운딩라이프 멤버인 강근영 씨는 "오는 7월 넷째 주에 이곳에서 공연하는 관계로 공연관람을 하게 됐다"며 "공연이 인상 깊었고 단지 퍼포먼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공연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콘서트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이 참석했으며 백인과 흑인 관객들도 눈에 띄었다. 주최 측은 더텐트가 마련한 공연이 타운에 한인젊은이들만을 위한 이벤트가 아닌 한인타운내 거주하는 모든 인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문화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한편 다음공연은 오는 30일(토) 오후 7시45분 이음카페에서 갖는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

## 27개 교회, 12개 단체 참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28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워터 네로우 레크레이션 에어리어에서 27개 교회와 12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사랑의마당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남가주말말선교단과 해피빌리지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랜디김 밴드와 해브스 밴드의 연합밴드와 로그댄스 미나스트리가 나서 공연을 했으며, 이들 공연

에 맞춰 이날 참석한 모든 장애인들이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말말선교단 이종희 단장은 "발달장애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장이 있어 감사하고 교회와 단체가 연합해 의미를 이어갈 수 있어서, 그리고 커뮤니티에는 행사를 통해 함께 섬길 수 있는 장을 알릴 수 있어서 감사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준호 기자)

#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LA지역 모임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노석 목사)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 한인타운 인근 비원시당에서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LA지역 모임(회장 김영 목사)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동문 임용출 목사가 나경순(복음교회)이 맡음을 전했으며 동문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총무 최창수 목사는 "동문회 LA지역 모임은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 일대에서 사역하는 동문들의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결성됐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갖게 될 것이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온누리소망교회 설립 3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좋은신 하나님 닮는 좋은 교회로"

## 온누리소망교회 설립 3주년감사예배

온누리소망교회(담임 조요숙 목사)는 교회설립 3주년 감사예배를 3일 오후 2시에 가졌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조요숙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조덕희 전도사가 기도했으며 캐더린 목사(풀러신학교 객원교수)가 "좋은 하나님(눅4:43, 요10:10-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캐더린 안 목사는 "좋은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좋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다. 많은 사람

들이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 부른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안 목사는 "좋은 교회는 좋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닮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은 모여 있다"며 "좋은 교회는 좋은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교회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 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경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 오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213)381-8202, Fax: (213)381-8202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영성)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9: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org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연합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3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목회: 오전 5:30 영어 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ksolidrock@gmail.com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 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391-8202, Fax: (213)391-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집 안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영소-KDC, 침례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중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b>등운교회</b>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37 www.gak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경목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	<b>드림교회</b>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연합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6:00(토) Tel: (626)793-089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연합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회/새가족):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www.mppca.org Tel: (213)384-6200,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Torrance CA, 90505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전 7:30 성령강림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b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복음성령교회</b>  담임목사 : 김상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7: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연합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6:0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저녁 7:30 금요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F-2B L.A., CA 90020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워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령강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채기도전: 2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714)846-8289 Fax: (714)846-8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t.com Tel: (310)530-400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2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 김배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교회 어린이날 행사 반갑다” 부모·어린이 함박웃음

### 지역 교회 어린이날 프로그램 교회 울타리 벗어나

“가까운 데서 아이들이랑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어린이날인 5일 황준(39)씨는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 부천종합운동장 일형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축제에 참가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천 성만교회(이찬용 목사)가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이름으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사에는 이날에만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 등 연인원 3만여명이 다녀갔다.

지역 교회의 어린이날 프로그램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다. 교회 주변 및 지역 어린이·가족들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행사가 눈길을 끄는데, 전도와 선교 차이를 넘어서서 교회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익을 감당하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15번째 어린이 축제 행사를 이 어온 성만교회의 경우 성도들의 헌신이 돋보인다. 어린이 놀이 기구 등 30여개에 달하는 체험부스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봉사자로 나선다. 주부 성도인 강정경(38)씨는 “매년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은 놀게 하고 저희들은 봉사자로 도

울 수 있어서 특별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는 부천시를 비롯해 소방서와 경찰서, 주요 NGO들도 다양한 활동 부스를 지원할 정도로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다. 지역 사회를 향한 교회의 한결같은 헌신으로 신뢰가 쌓인 덕분이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는 어린이 축제인 ‘꿈을 먹고 자라요’ 행사를 올해 처음 마련했다. 교회 앞마당에 놀이·먹거리·미술·공연마당 등 다양한 활동 무대를 설치했다. 반나절 동안 지역 어린이 400여명을 비롯해 700명 넘게 참여했다고 교회 측은 설명했다. 권준호牧사는 “용인 시내에서 다소 외진데다 지역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곳인 점을 감안해 준비했다”면서 “지역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안성맞춤 사역’”이라고 전했다.

경북 경산시 경산중앙교회(김종원 목사)도 교회 앞마당에서 ‘어린이날 축제, 오!오! 해피 키즈!’를 개최했다. 타악공연과 코믹 매직쇼, 버블쇼 등이 펼쳐졌고, 8개의 대형 에어바운스 놀이기구도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먹거리 장터 등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은 북

한 장애인어린이를 돕는 NGO ‘푸른나무’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도 ‘2015 교회학교의 날’ 행사가 열렸다. 교회 안팎에서는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와 포토존 등이 설치됐고, 먹거리 장터도 열렸다. 어린이 뮤지컬 ‘인형의 별’과 국악뮤지컬 ‘은혜 받은 놀부’ 등이 선보였고, 보드게임과 탁구대회 등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학부모를 위한 강연도 진행됐다.

이 교회는 2009년부터 ‘다음세대와 함께 하는 교회’를 기치로 내걸고 어린이날마다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5000여명이 다녀갔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먹고 뛰어놀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라면서 “비신자나 지역사회 어린이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고 설명했다. 자녀 2명과 함께 서울 개포동에서 온 김미단(43·여) 집사는 “어린이날에 놀이공원에 가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교회에서도 아이들과 충분히 놀 수 있다가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세대, 대책 연구”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 기자간담회

세계성서공회연합회(총무 마이클 페로)는 4일 서울 서초구 바우미로 더케이호텔에서 ‘제5회 세계성서출판회의’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시대를 맞아 성서공회가 직면한 과제와 대안 등을 설명했다. 더케이호텔에서 3일 개막한 제5회 세계성서출판회의는 8일 까지 열리며, 미국 영국 프랑스 아프리카 등 세계 80여개국의 성서공회 대표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했다. 2007년 시작된 세계성서출판회의는 2년마다 개최된다.

간담회에는 마이클 페로 총무와 멜빈 리베라 출판 총책임자가 참석했다.

페로 총무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

녀 세대인 ‘밀레니엄 세대’들은 인쇄물이 아닌 디지털 매체를 선호한다”며 “이들은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고 핵심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책보다 작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독서하고 성경을 읽는다”며 “성서공회는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라 총책임자는 “여전히 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인쇄된 성경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도들은 성경을 구입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

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환경 때문에 성경을 무료로 보급하는 성서공회의 활동은 중요하다”며 에콰도르성서공회 활동을 좋은 예로 들었다. 에콰도르성서공회는 6년 전 대한성서공회의 지원으로 설립돼 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성서공회로 꼽힌다. 에콰도르성서공회는 에콰도르의 성서 보급뿐 아니라 쿠바에도 성서를 보급하고 있다.

리베라 총책임자는 “디지털 시대라 해도 인쇄된 성경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디지털 성경과 인쇄 성경이 함께 발전하는 방법 등 이번 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성경을 접적 더 읽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안에 대한 대책은 세계성

서출판회의가 끝난 후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향후 보고서로 발표된다.

페로 총무는 특히 대한성서공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가족인 대한성서공회는 한국에 있는 성서 제작 시설을 통해 전 세계 성서 반포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경 앱 개발 등 디지털 시대를 겨냥한 사역이 압도적으로 우수해 다른 나라 성서공회에 큰 도전과 자극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로 총무는 네팔의 지원 참여와 관련해 “네팔성서공회를 통해 성서 보급뿐 아니라 재난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1946년에 창립된 단체로 세계 146개국의 성서공회가 가입돼 있다.

## 기하성 양교단, 임원후보 확정

### 18-19일 총회, 총회장후보 이영훈, 서안식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4일 현 총회장인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사진) 목사가 제64차 총회 임원선거에서 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다.

부총회장에는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이태근(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강영선(일산순복음영산교회)

윤종남(순복음금정교회) 김명현(이천순복음교회) 최명우(순복음강남교회) 고종진(은석교회) 목사와 김인식(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 중 3명은 현장 투표로, 1~3명은 총회장 추천과 총회대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현 총무 엄진용(제일종은교회), 서기 이일성(순복음삼마

교회), 재무 박형중(순복음평택중앙교회) 목사는 각각 연임을 위해 재출마했다.

기하성서대문(총회장 함동근 목사) 총회의 경우 제64차 총회 총회장 선거에 서안식(순복음축복교회·사진) 제1부총회장이 출마했다. 총무에 정동근(서울남부교회), 서기 이건재(순복음강변교회), 회계 유영희(명일순복음교회) 목사가 출

마표를 던졌다. 아직 출마자가 없는 제 1·2 부총회장과 재무 후보는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추가 등록을 받기로 했다.

기하성 여의도 순복음은 오는 18-19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하성서대문은 같은 기간 총회 제천 순복음총회신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 이사장 퇴진요구 봇물 감신대사태 악화일로

### 이규학 이사장 불공정 인사 의혹막말 파문으로 홍역

우리나라 최고(最古) 신학대인 감리교신학대가 이 대학 이규학 이사장의 불공정 인사 의혹과 막말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보직교수를 제외한 교수 상당수와 총학생회가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총학생회 회장은 4일부터 교내 중담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악화 일로로 치닫는 ‘감신대 사태’=5일 감신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감신대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9-11월 비정년 계열 교수 3명을 상대로 진행된 정년 전환 심사였다. 강의평가 점수와 논문 실적 등이 우수한 여교수 A씨는 탈락한 데 반해 이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수 B씨와 C씨는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정년이 보장되는 부교수에 임용됐다.

일각에서는 이 이사장이 정년 전환 심사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교수는 “

감신대는 하나님의 학교이지 이사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법인 사무처의 직원 채용 과정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법인 사무처는 지난해 6월 ‘회계 세무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1년)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경영학이나 부동산학 전공자를 우대한다는 조항을 명시했으며, 전형에는 총 8명이 지원했다.

문제는 우대 조항에 걸맞은 지원자 7명이 탈락하고 영평한 인물 이 합격했다는 점이다. 합격자는 B씨의 조교 출신이자 경력이라고

## ‘통일한국 구상’ 행동계획 수립

### 국내외 35개 북한선교·구호단체

국내외 기독교계가 분단 70년을 맞아 북한 선교와 구호를 위해 뭉쳤다.

한국 모퉁이돌선교회, 미국 국제재난대응네트워크(IDRN) 등 8개국 35개 북한선교·구호단체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열린 ‘남북한 통일준비를 위한 메이데이(MAYDAY·긴급조난신호) 선교전략회의’에서 ‘통일한국 구상 및 네트워크(KRIN)’ 행동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모퉁이돌선교회 대표 이삭 목사는 인사말에서 “KRIN은 지난해 8월 16~22일 ‘통일준비 완료’를 위한 카운트다운 365’를 선포하고 1200여명이 모여 특별기도회로 시작했다”며 “그 후 북한선교 전문가들이 3차례 열린 통일선교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RIN은 북한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행동하는 네트워크를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교회를 위한 기도와 기금모금, 구호지원, 화해사역, 탈

북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상담지도자 훈련, 북한 내 지하교회개척, 성경·문서보급, 북한교회 지도자 리더십 훈련 등 12개 사역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사역 담당자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하면서 현지 북한선교 계획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또 12개 사역 분야 외에 현지에서 북한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역을 담당하는 일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도와 프로젝트 관리, 교회참여, 홍보 등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이 목사는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선교 및 구호단체 소속 외국인 100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KRIN 선교전략 회의의 목적을 설명한 IDRN 대표 마이크 목사는 “‘땅끝 선교’로 불리는 북한선교와 구호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라며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북한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scuen.org).

## “북한의 인권탄압 기도해주세요”

### 기독 탈북민 10여명, ‘평화 기원’ 문자 메시지 잇따라

“북한의 인권탄압 기도해주세요”...기독 탈북민 10여명, ‘평화 기원’ 문자 메시지 잇따라 기사의 사진 유엔 국제 한국대표부와 미국대표부가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북한인권 행사가 북한 외교관들의 ‘돌발행동’으로 파행을 겪은 데 대해 기독 탈북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북한 외교관들은 사회자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않고 미국과 탈북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큰소리로 읽어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미국은 인권문제를 대북 적대정책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무고한 흑인들을 살해하는 등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다” “탈북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과 조국을 배신한 쓰레기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 강철호 새터교회 목사는 3일 국민일보에 보낸 메일에서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분노했다”며 “강도만난 이웃인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탈북여성 박사 1호’ 이예란 북한전통음악문화연구원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제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야만으로 지탄받지 말고 정상적인 집단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야만의 행동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탈북민 최옥한 민족학교장은 “세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북 외교관들의 무례한 행동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국민일보에 보내 왔다.

반면 일부 기독 탈북자들은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무조건 몰아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심주일 창조교회 목사는 “북한을 비난만 하지 말고 그들의 주장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견을 요구한 탈북 대학생은 “무턱대고 잘못만 지적하면 누가 화를 내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조금은 이야기해 주면서 비판했으면 한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기총, ‘봉은사역명대책위’ 구성기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명칭 변경 문제를 다루는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한기총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임원회에서 “봉은사역명 사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결의하고 ‘봉은사역명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봉은사역명을 변경하기 위해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서울시를 상대로 역명사용중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봉은사역명 철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기총이 대책위를 구성기로 한 것은 시민정서와 상반된 결정을 한 신규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종교편향적 행정에 대해 한국교회가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지난 2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봉은사역을 확정할 것은 행정원칙과 시민정서를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한기총은 다음달 서울광장

에서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문화축제’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장 면담 및 대책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 차례 무산된 세계복음주의연맹(WEA) 한국총회 재추진 안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한기총은 이날 임원회에서 올 하반기 실시하는 주요 행사들도 집중 논의했다. 우선 8월 15일 오전 6시 서울광장에서 ‘광복 70주년·분단 70년 국민대화합대회’를 열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사 1부는 ‘광복 70주년·분단 70년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2부는 ‘화해 평화 미래’를 주제로 7개 종단이 함께하는 ‘광복 70주년·분단 70년 국민대화합 대회’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5-9일에는 한기총 선교위원회 주최로 ‘제1회 할렐루야 인도차이나반도 선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행사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선교대회로 선교 집회와 한인선교사 세미나, 태권도 대회, 의료·문화선교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 시론

(2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남을 생물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아래 있음을 시인하라. 우선은 일반적인 자연 은혜요, 다음은 특별한신 구속의 은혜

이다. 비록 사막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으로 생존하게 된다. 마치 모세가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본 영광의 불꽃처럼, 그 영광의 불꽃이 비록 사막에 나뉘는 하층은 가시떨기 위에 임하였지만 사라지지 않듯이 가시떨기 같은 연약한 내 인생

의 존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가장된 물은 온갖 세포 그 물망에 춤추며 담아 보관하는 선인장처럼 우리 위에 임하시는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지정의 모든 세포로 춤추며 담아내는 거룩

한 영적 여과 과정을 통해 사막화되어가는 이 땅에서도 빛이 청청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온 몸으로 친히 반영해나가는 사막행 인간이 되어야 한다! 물이 없는 사막이라고 탓하지 말고 사막에서도 푸르게 생존해가는 사막행 인간이 되어야 한다.

# 선교 편지

## 네팔

PRAY FOR NEPAL!  
이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네팔에 강한 지진이 일어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뉴스를 통해 얼마나 강한 지진이 왔는지, 피해 규모 등은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진 이후의 문제들로 힘겹습니다. 저희 가족도 작은 소리에 놀라고 두통으로 힘들고, 물이 좋지 않아 아이들이 열이 나고 설사를 합니다. 좋지 않은 이 물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진의 두려움에 집을 비우고 천막에서 지내는 동안 마을에는 도둑들이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고, 생필품들이 원할이 공급되지 않을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이것저것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산속에 있는 사역지의 성도들과 친구들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不通입니다. 그쪽에서 트래킹을 간 사람들이 길에서 내려오고, 다친 사람들이 병원으로 와서 피해 상황을 얘기 할 때는 가슴

을 것 같은 상황인데 다시 살아갈 힘을 세우는 이들을 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더 나누기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산간지역 구호활동을 갔다가 랑탕 사역지 주변 마을 소식을 들었는데 그 중 한 마을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전체 가구가 지진으로 무너지고 많이 다치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에 다리가 풀리고 멍해지고 눈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이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산간지역 마을에 무너진



저희 역시 사는 지역이 진원지와 가까이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 집 뒤에 있는 이 절라(우리나라에 '도')에서 가장 큰 병원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다친 산간지역 사람들이 걸어서 또는 들러서 무너진 병원으로 밀려오고 있고, 매일 헬기가 산간지역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되는 여진 가운데 마을 사람들과 공터에 천막을 치고, 먼저 집에 있는 약을 챙겨 교회와 이웃과 나누고, 무너진 병원에 가서 다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무너지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가서 보고 싶어도 길이 산사태로 끊어지고, 산에서 떨어진 짐체만한 큰 돌이 도로 위에 여기 저기 떨어져 있는 것을 듣고 사진으로 봤습니다.  
급한 대로 집을 대신한 천막과 쌀을 가지고 이들을 찾아가 나누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무너진 집에서 물건을 꺼내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삼과 곡괭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흙을 퍼낼 도구가 없어서 어렵다는 이들의 말에 다시 힘을 내게 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도 재건할 엄두도 나지 않

집과 삶을 재건하는데 삼, 곡괭이 임시로 거주할 천막이 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쌀, 소금, 달, 짜우라, 식용유 등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 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연약, 박이레 (PGM 네팔선교사) 드림  
이메일: admin@pgmusa.org

# 선교 편지

## 스와질랜드

우아프로젝트 4월의 소식을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이사야14:24)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긴 겨울의 고통을 끝내고 새 생명의 기운이 막 움트는 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절망이 있었다면 잔인한 4월이겠지만 이제 온 만물이 푸르름을 자랑하고 생명이 온 누리에 충만해 지는 5월을 한껏 맞는, 복된 시간들을 바귀기를 바라면서 평강의 문안을

4월 첫 주에 정의와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임시비 템바 스와질랜드 국회의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4월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국제보건료재단 및 코이카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으며 또 외교부 아프리카국장님과 만남을 통해서 한국과의 보건료분야의 협력이 절실함을 설명하였고, 또 한국대사관의 복원도 요청하였습니다.

이 방문을 계기로 돌아가서 스와질랜드 보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남아공 한국대사관을 통하여서 후속협약의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개설과 스와질랜드 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이 잘 진행되어 스와질랜드를 비롯한 동, 남부아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이루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와질랜드에서는 우간다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여름, 겨울로 나누어지면 진료 팀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초청하려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여건들이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도 여름 팀을 일단 준비하기로 하였습니. 다만 외과중심의 수술팀으로 꾸리려는데 관절경을 해주실 수 있는 정형외과, 구순개열을 해주실 수 있는 성형외과, 방광루공과 전립선비대증, 암수술을 해주실 수 있는 비뇨기과 및 산부인과 선생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외의 분야도 어떤 분야도 환영합니다만 현지 병원에서 준비와 비행기표를 위해서 늦어도 5월 중으로는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일단 7월 24일 금요일부터 2주간내외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김경진 부학장(010-2743-8430)이나 김선영 교수(sykim@cnu.ac.kr; 010-4408-7143)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녀오던 직장까지 휴직을 하고 스와질랜드로 들어와서 IT학과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현지사정을 더 잘 익혀서 우리들이 준비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돕기 원하시는 하한미 후원자께서 지난 4월 하순에 스와지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은 현지적응 기간으로 영어공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 중인데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품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는 6분(조혜정, 정사라, 배경도, 김시환, 김예진, 김혜진)이 정기후원으로 새롭게 또는 재가입을 해주셨고 6분(김정연, 지충남, 김명은, 오혜영, 충남대학교병원 오후, 앤도메디스)이 특별후원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귀한 후원금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아프로젝트 드림



드립니다.

헬스센터(클리닉)를 3월에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스와질랜드의 보건료현실을 알아보고 또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최소 3-6개월은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자재나 의무기록시스템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2년반 동안 함께 하였던 차민섭 선생님(소화기내과)이 6주간 방문을 하셔서 엔도메디스에서 기증해주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부분을 완벽하게 조절해 주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임경아 선생님(소아심장)과 함께 심장내과를 시행할 수 있는 초음파기도도 잘 작동하도록 완벽하게 스와질랜드에서 내시경도, 심장내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책임도 크게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카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특별히 수고하신 연세대 허승근 교수님(신경외과)께 감사드립니다.

의과대학의 개설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들어간 의대 준비 팀이 ACM을 대신해서 건물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시스템 상에서는 어렵고 의대의 자율성이 온전히 보장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건물이 준비 안된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금년 8월 개교는 어렵게 되었기에 그동안 함께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하며 널리 해방의 시기를 바랍니다.

SCU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 놓고 주님의 선하신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덴버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scschurch.com</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중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벤델교회</b>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유치, 유년노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748</p>	<p><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00 Tel: (254)634-8705(H), (988)팩스(영문)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b>시애틀평안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schurch.com</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역: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wkccs.com</p>	<p><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542-1490, 사역: (915)511-4365 3416 Al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부흥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H), (988)팩스(영문)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에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nacrc.com</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kcpnew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 희노애락의 멜랑즈 (Melange)

멜랑즈(Melange)는 혼합물, 뒤범벅, 섞여있는... 그런 뜻입니다. 최근 저는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란 책을 읽고 기록한 고민(^\_^)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비엔나 근방의 황실사냥 별장이었던 "마이엘링(Mayeling)"이란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황태자 루돌프와 이를 수 없는 사람이었던 애인 마리아가 함께 자살한 곳'이네요.

"오스트리아 합수브르크-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요셉 황제와 '엘리자베스' 왕비의 외아들 루돌프 프카...

"영? 거의 동시대에 살았네! 선교사 '닥터 홀'의 가족과, '합수브르크'가의 왕실귀족들이... 아! 화려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으나 끊임없이 절절된 비운의 삶을 살다 간... 인생의 멜랑즈어!"

사실, 제가 책, "조선회상"을 읽으면서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오마주와 함께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마치 이름없이 쓰러져가는 한 병사가 멀리 립킨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 같은... '하지만 그 무명의 병사들이 없었다면 미국의 남북전쟁이 승리할 수 없었지!' 그렇게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8일, "헝가리 전국 집시교회 연합예배"가 있어서 저희가 참석하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장한

안내자들이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 안내자는 바로 이전에 우리 노숙자 성도였던 것입니다.

"줄러(Gyula)!" 우리는 이름을 부르며 서로 뿌시뿌시(포옹)를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하던지... '주님! 부족한 저희가 이 땅에 선교사로 살아오고 있는 의미

그리고 전쟁(세계 2차 대전) 소식도 일본군인들의 감시 물레 라디오에 청진기를 대고 들었대요.

저자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는 1891년 서른한살에 조선 선교사로 와, 청일전쟁으로 부상당한 자와 환자들을 돌보다가 4년 만에 발진티푸스에 걸려 소천하십니다. 어머니 '로제타 홀' 의사는 선교사로 살아오고 있는 의미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단기선교팀을 데리고 갔던 코즈마, 바츠 교도소에 서도 왔더군요. 그곳에서 만났던 집시(찌가니, Cigany) 형제들이 나와서 간증과 찬양을 할 때, 또 인솔해 오신 목사님들과 재회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닥터 셔우드 홀의 책 "조선회상"의 원제목은, "아시아: 한국에서 청진기로"입니다. 청진기(stethoscope)로 병든 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해주며 선교했으니...

전염병(이질)으로 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장성한 아들 셔우드 홀(Sherwood Hall, M.D.) 의사는 아내 매리언 의사와 함께 조선에서 폐결핵 퇴치를 위한 의료사역, 요양원 설립, 크리스마스 썰 발행을 합니다. 그러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1940년 재판을 받게 되고, 조선을 떠나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70살에 은퇴한 후, "조선회상"과 "인도회상"이란 기록을 남기고, 98세인 1991년에 소천합니다.

다. 닥터 홀 가족의 삼 대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있습니다.

홀! 그리고보니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가 조선 선교사로 간지 딱 100년 후인 1991년에, 한 한국 선교사 가족인 저희가 헝가리 선교사로 들어왔네요(현재 한인선교사는 온 세계에 2만 여 명).

'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니, 선교사로서 뭘 남기고 갈 수 있을까?' 많은 묵상과 기도, 고민과 회개, 비전을 갖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닥터 홀' 선교사 가족이 한국의 결핵을 퇴치했다면, 우린 헝가리의 집시들을 깨우는 일이야! 비교육, 심대 출산, 범죄 등으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슬럼가의 집시들을... 주여...! 인생! 비록 희노애락의 멜랑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선교사!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이메일 : mylovehungary@hanmail.net

## 뉴욕대 한인 학생 북한 억류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출신 뉴욕대(NYU) 학생 주원문(21.사진)씨가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 당국에 억류돼 총격을 주고 있다고 4일 미국내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씨가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불법) 입국하다가 단속됐다"며 "그는 자기 행위가 공화국법을 침해한 엄중한 범죄라는 데 대해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는 주씨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의 미 영주권자라고 확인했다.

주씨는 지난 2012년 테너플라이 고교를 졸업한 뒤 뉴욕대에 진학했다. 뉴욕대 측은 주씨에 대해 이 대학 경영학과 3학년으로 이번 봄학기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교 시절 주씨와 친했던 친구들에 따르면 그는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갔다. 하지만 주씨가 압록강 부근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려 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친구들은 "선교 등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씨의) 북한 억류 소식을 1주일 전쯤 들었다"며 "학교를 쉬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큰 충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씨는 가족에게도 중국에 여행했다 다녀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북한 관련 단체에서의 활동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뉴욕대의 북한인권 모임 'Freedoms 4 North Korea' 소속 학생들도 "주씨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씨는 부모, 형과 함께 테너플라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주씨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3일 현재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상태로 가족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

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아파트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주씨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화로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아파트 이웃 주민은 취재진에게 "주씨 가족이 8년 이상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조용한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주씨를 아는 테너플라이 주민들은 "방문으로 꼽히는 테너플라이 고교에서도 전교 3등 안에 드는 뛰어난 학생이었다. 수학과 육상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며 "매우 착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고 전했다.

고교 친구들은 주씨 구명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살고 있던 주민이 북한에 억류된 만큼 테너플라이를 관할 지역으로 둔 빌 파스커필(민주) 연방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미 정치권이 주씨 구명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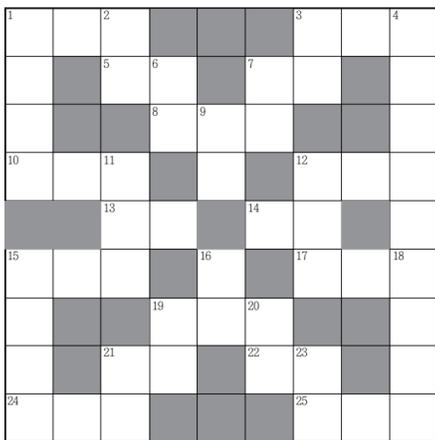
3일 한국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씨를 억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조속한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씨를 포함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북한은 앞서 2013년 10월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붙잡은 김정욱 선교사와 올 3월 남한 '간첩'이라며 공개한 김국기, 최춘길씨 등 3명을 억류 중이다.

주씨의 억류 소식이 전해진 3일 북한 당국은 평양의 한 호텔에서 김국기, 최춘길씨와 CNN의 인터뷰를 허용했다. CNN은 "이들이 북한 당국에서 진술을 강요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주씨와의 인터뷰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 십자말 • Cross Word (79)

####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 <가로 푸는 열쇠>

1. 원숭이(왕상10:22).
3. 안식하고 난 뒤(눅24:1).
5.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12지파에게 토지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에게 준 땅 이름(요4:3).
7.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창41:45).
8.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약속의 말씀을 글로써 표시한 것(출24:7).
10. 소, 양이 먹은 것을 도로 입으로 내어서 다시 잘게 씹어 삼키는 짓(레11:3).
12. 나의 평생에 OOO과 인자하심이...(시23:6).
13. 선거 또는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하는 일(행26:10).
14.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결말의 상태(사32:17).
15.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OOO 또 추한 생각...(찬433장 통490장).
17. 이곳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어 죽었다(눅13:4).
19. 하나님(사50:6).
21. 정치상의 일(골2:10).
22. 아들과 땅을 통틀어 일컬음(시128:6).
24. 로마에 있는 신도이다(롬16:15).
25. 앞으로 오는 오랜 기간(골1:3).

#### <세로 푸는 열쇠>

1. 사울이 교회를 OOOO...(행8:3).
2. 어떠한 사물이나 관념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을 끌어내어 설명하는 일. 예수님이 잘 이용하셨다(막4:13).
3. 자세히 살피어 조사함(왕하13:16).
4. 일이 잘못된 뒤에 아무리 뒤쳐도 어찌 할 수가 없음. 가룟 유다처럼.
6. 남 대신으로 말할. 목사님이 잘하심(겔37:4).
7. 정하여져 있는 차례(민2:17).
9. 장래의 일에 대하여 상대자와 서로 결정하여 됨(롬4:21).
11.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민25:11).
12. 설익은 과실(계6:13).
15. 소아시아인으로 바울을 쫓다가 바울이 감히니 바울을 배반하였다(딤후1:15).
16. 글씨 쓸 때 종이 밑에 끼는 널판(사8:1).
18. 아하에셀의 부친(민1:12).
19. 마음을 쓰는 본새, 좋지 않은 마음보(삿5:15).
20. 말아들(출13:15).
21. 오징 때(시37:6).
23. 식사를 마친 뒤(고전11:25).

#### 십자말 정답



P.I.O.N.E.E.R P.I.L.G.R.I.M T.O.U.R

##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대표전화 714-351-0124

품위있는 성지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와 함께 하시면 순례가 은혜스럽습니다.

### 여행상품 · 일정

터키/요르단/이스라엘-12일 \$3699 * 출발일: 4월 4일, 18일/5월 2일/9월 19일/10월 3일, 17일/10월 31일	터키/그리스/이스라엘-12일 \$3799 * 출발일: 4월 19일/5월 17일/6월 21일/7월 26일/9월 13일/10월 11일
터키/그리스/이태리-12일(13일) \$3499 * 출발일: 4월 5일, 11일, 25일/5월 3일, 9일/5월 31일/7월 26일/9월 20일, 27일/10월 10일, 11일, 25일(13일)/11월 7일, 28일	요르단/이스라엘-9일 \$3199 * 출발일: 4월 6일, 20일/5월 4일, 18일/6월 1일/9월 28일/10월 12일, 26일
터키/그리스-10일 \$2799 * 출발일: 4월 5일, 19일/5월 3일/9월 20일/10월 4일, 18일/11월 1일	이태리(요르단)/이스라엘-9/11일 \$4199 * 출발일: 4월 13일, 27일/5월 11일/7월 24일/9월 14일/10월 5일
터키/이스라엘-10일 \$3199 * 출발일: 4월 12일, 26일/5월 10일/9월 11일, 25일/11월 8일, 29일	체코/독일/스위스/프랑스-10일 \$3999 * 출발일: 4월 13일/6월 14일/9월 20일/10월 18일
터키/밤모/그리스-11일 \$3299 * 출발일: 4월 26일/5월 24일/6월 28일	체코/독일/스위스/이태리-10일 \$3999 * 출발일: 5월 10일/8월 9일

※ 유류할증료, 항공세 포함  
※ 비자피, 출입국세는 별도  
※ 여행자 보험은 옵션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세요!  
**714-351-0124** 성지전문 15년의 경력  
최최 목사  
함께 하면 은혜스러운 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PIONEER PILGRIM TOUR

새로운 성지순례의 지평은 언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주소: 17510 Pioneer Blvd, #210 Artesia, CA 90701  
\* E-mail: choigh1115@gmail.com, choigh1115@hanmail.net \* 파이오니아 사무실: FAX.(562)403-3363

DYNAMICS 다이내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겟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지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www.laguesthouse.com

##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터온내 무료매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84)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7)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 중에서, 성경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초들 중에서도 먼저, 구약에 나타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에서 신명기 6:4-9, 시편 78편, 느헤미야 8장, 그리고 잠언을 비롯한 시가서 전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선지서 전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

는 교역적 기초는 “한인교회의 교육은 예언자적이어야 하며, 이에 한인교회의 사역자들은 예언자적인 교육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서들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사회와 시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자들로서 부름을 받았으며, 사회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며 이를 행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인교회 사역자들 또한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한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가진 자로 부름 받았음을 인식하고 이에 합당하게 우리의 교육적 시대와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인교회의 교육적 소명으로서의 예언자적 교육이란, 시대와 사회를 향해 외쳐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알고, 또한 이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패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으며, 그 사회는 불의하고 왜곡되었습니다. 이에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됨으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속히 그리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또한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 고초를 당하기도 했으며,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일삼기도 하였지만, 이후 종종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며 죄악에 빠지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또 다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불의를 그치고 회개할 것을, 때

로는 강력하게 또한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하게 불렀고 있었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백성들의 반복되는 실책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선지자들이 외쳤고, 우리가 시대와 사회를 향해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회적 불의와 공동체적 죄악을 회개하여 바로잡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깨닫고, 이를 시대와 공동체를 향해 외치는 일을 실천하는 교육이 바로 예언자적인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예언자적 교육의 핵심은 사회적 불의와 왜곡에 대한 공동체적 회개와 이를 대 사회적으로 촉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 선포의 중심에 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자적 교육이 우리 전체 교육의 중요한 기초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지서 전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는 한국교회 보수신학 및 보수 신앙전통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교단을 막론하고 대체적으

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인교회의 보수성은 한인교회의 교육이 그 예언자적 교육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충분한 강조점을 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우리 한인교회들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불의에 맞서 공동체적인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일 등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웬지 불온해보여서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며, 성과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사회문제에 뛰어들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나,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불의와 왜곡에 대항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마음과 관심을 두고 실천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영역도 아니고 또한 심지어 교회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한인교회들에게 미국사회의 문제들이 아주 가깝게 와 닿지 않을뿐더러, 미국사회의 불의와 왜곡들에 맞서 회개를 촉구하고 사정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며, 이러한 것들을 교육적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들 또한 동등하게 미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이므로, 그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이기에 더욱 세심하고 예민하게 사회적인 불의와 왜곡에 체험적으로 대응 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목소리를 높이고 정의 구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을 구성해갈 수 있는 잠재력도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 월 구속의 노래(계7:1-10)찬221장

흰옷 입은 14만4천인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어린양의 인도를 받는 교회를 가리킵니다(4.9). 그들은 구원의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가 있고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노래 어떤 것입니까? 첫째, 어린양의 구원입니다(10).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룬 그 구원을 통해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부의 사랑

이 아니면 성자를 보낼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부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전적으로 부패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낱낱의 일에 그리스도 중심한 자가 될 때 진정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갈2:20).

### 화 구원과 심판(계19:11-21)찬469장

구원과 심판은 구속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은 약속대로 그에게 소속된 자기 백성을 모두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백마 탄 자를 따르는 일입니다. 친화 구원을 이루신 분은 충성과 진실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둘째,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른 일입니다. 입에서 나온 낱선 검 곧 말씀으로 원수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내가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고 따르고 지키는 바로 그 성경구절입니다. 셋째, 구원과 함께 심판 역시 그 분이 하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괴롭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힘쓰십시오.

### 수 보장된 승리(계17:14)찬388장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하나하나의 모든 일까지 연장되는 절대 보장된 승리입니다. 본문은 그와 연합한 자를 셋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첫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의 자녀가 되고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그의 조용한 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효과적 부르심). 둘째, 빼내심을 얻은 자

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내적 부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행동있는 구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사탄과 정욕의 노예인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셋째, 진실한 자가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진실의 모습을 따라 진실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실의 윤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보장된 승리의 길을 걸으십시오.

### 목 모세의 노래(계15:3)찬49장

두 부류로 구분해 하나는 구원, 다른 하나는 심판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택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정절로 승리해 한 손에 거문고를 갖고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어린양의 노래로 네 생물과 24장로와 만물과 천군천사들이 부른 노래와 같고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노래(출15:1-)와도 같습니다. 둘째, 그 내용은 1)하나

님의 전능으로 구원을 이루심 2)하나님의 선, 진실 3)의와 거룩의 하나님께 열방이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구속의 일입니다. 셋째, 창조와 섭리도 그분의 일하심으로 된 것이지만 언제나 구속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 완성됨으로 창조와 섭리가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는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 금 심판에 동참한 신자(계14:14-20)찬502장

첫째, 흰 구름 위에 있는 낱선 칼 가진 천사는 심판의 임무를 받았습다(14). 구원과 심판이 어울려 풀려가는 세상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중심은 여전히 이 두 사건에 있습니다. 둘째, 16절에 거두지는 곡식은 구원받을 택한 자인 교회입니다. 알곡을 거두시는 구원의 역사는 교회에서부터 개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납니다. 셋째, 17-20

절에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는 일은 심판의 일면을 보이는 그림으로서 불타는 심판이 이 땅에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영원한 지옥심판의 전주곡입니다. 이를 찾으시는 주님의 열심은 이것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성경을 믿어 구원받은 나의 증거가 이처럼 권위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십시오.

### 토 교회의 능력(계1:2)찬265장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시자도 되시고 그 자신이 계시이십니다. 그의 33년 지상사역 중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신자의 모든 사상과 삶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첫째, 예수로 인해 우리는 시작됐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가 본 계시는 천상과 지상, 과거 예멘동산, 현

재 교회사역, 장래 아바겟돈, 천년왕국 및 천당까지 총망라한 종합적 계시의 성경을 갖습니다. 둘째, 그는 인자 자신의 모습 다음,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교회를 일곱째대로, 주의 사자(집담목사)를 일곱째이라 했습니다. 이 교회를 살피시고 별들을 벌드시는 분이 인자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의 원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h4>금란교회</h4> <p>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96-5770 서울시 동양구 광우동 340-1(131-231)</p>	<h4>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오월야예배: 오후 9:00</p> <p>Tel: (031)877-3382-49, Fax: (031)877-8382 (우)110-8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0-1</p>	<h4>로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h4>새에덴교회</h4> <p>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h4>성문교회</h4> <p>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p> <p>Tel: (82)2-2648-3191~3, (82)2-2646-3184 서울시 서초구 서호동 520 (152-808)</p>	<h4>성실교회</h4> <p>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www.seongsil.or.kr Tel: (82)2-956-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p>	<h4>성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p> <p>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p>
<h4>수정교회</h4> <p>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h4>승동교회</h4> <p>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포구 용포동 137번지</p>	<h4>시온소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일-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p>	<h4>신길교회</h4> <p>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h4>신천교회</h4> <p>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p> <p>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길 29(갈매동) www.shincheon.org</p>	<h4>신촌교회</h4> <p>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p> <p>Tel: (82)2-786-6579, 새벽(02)32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h4>안양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p> <p>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매곡동 146-7</p>
<h4>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예배4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창신구 양곡동 415 www.yangok.org</p>	<h4>왕성교회</h4> <p>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h4>장위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p> <p>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h4>주안교회</h4> <p>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294-(10403-838)</p>	<h4>창대교회</h4> <p>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h4>청주주님의교회</h4> <p>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8: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h4>충신교회</h4> <p>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인/터/뷰

RCA 뉴욕한인교협 신임회장 나영애 목사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일한다”

지난 4월 27일 포레스트파교회(담임 나영애 목사)에서 열렸던 RCA 뉴욕한인교협 총회에서 나영애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1년간 RCA 뉴욕한인교협을 이끌 나 목사는 여성 목사로는 처음이며(RCA 한인여성목사도 1호), 이는 미국 교단 한인교협 중에서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RCA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말을 한 나영애 목사를 만나 여성 목사로서 처음 회장을 맡게 된 소감을 들었다.

“사실 RCA 퀸즈노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인교협의 회장을 맡으면서 퀸즈노회와 한인목사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 한인교협을 공부하는 교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첫 마디로 “공부”를 강조한 나 목사는 도시목회를 전공했지만(D. Min) 히브리어 헬라이어 원어에 능통하다. 원어를 알게 됨으로 얻는 성경이해에 대해 강조했다.

“역대상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는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목회를 지향하는, 공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원래의 하나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원어를 공부할 때 주의할

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하나님만 말씀하신다’는 신조로 사역에 임하고 있다.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일한다”



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장로와 권사로, 아들은 CPA를 그만두고 어느 날 웨스트민스터 신학생이 됐다. 딸은 의사로 선교의 꿈을 꾸고 있다. 남편은 교회에서 드러머로 적극 나 목사의 목회를 돕는 온 가족이 나 목사의 든든한 후원자들이다.

나영애 목사는 프랫 인스티튜트(BA), 뉴브런즈윅 신학교(M. Div), 블랜튼 피얼 인스티튜트(목회상담), 뉴브런즈윅 신학교(D.Min)에서 공부했으며 다수의

“공부하는 RCA 뉴욕한인교협으로 만들고파”

봉사직... 월레모임서 히브리-헬라이어 강의 계획

점은 원어를 사전적 의미로만 알면 안됩니다. 실천적 삶에서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목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여자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탓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미술대학(Pratt Institute)을 갔고 본인 표현에 의하면 ‘약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 그러나 졸업 작품을 보고 교수가 “너 목사 될래?”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고 고백했다.

625전쟁 때 가슴에 총을 맞았던 부친이 성경책을 품고 있어 살아났다. 그때 부친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첫 아이로 나 목사가 태어났을 때 부친은 남자가 아닌 것을 많이 아쉬워했다. 물론 이 서원은 아들이 아닌 딸이 결국 이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여자’라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자라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 나 목사는 설명한다. 수년 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꺾어짐(?)을 체험한 후부터는 고집이 없어지

다. 이번에 제가 하게 된 일이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이요. 한인교협은 지금까지 친교 위주로 운영됐었습니다. 친교도 하고 봉사도 섬김도 해야죠.”

또 여성으로서 여성목사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나 목사는 교단 외에 연합활동은 아직 정식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교협이나 목사회, 여성목사회 등 연합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많이 활용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1988년 뉴욕 중신교회와 신광교회 유스 목사로 정규 사역을 시작한 나 목사는 교단 내 한인교회의 영어목사와 뉴욕 청소년센터에서 10여 년간 사역해왔다. 그러다 2006년 현재 포레스트파교회(구 올네이션스찬양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동안 영어권 사역만 하다가 한인목회를 하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인 1세 남자목사님과 동역도 시도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있지만 단순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다행이 최근에 프랫 유학생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

신학교에서 히브리-헬라이어 원어 교수로 강의했다. 현재는 국제연합신학교에서 리더십과 성경원어를 강의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15면에서 계속〉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사회적, 공동체적 정의는 비단 우리가 밭 딛고 살아가는 미국사회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므로, 이민자라는 이유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에 움츠러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 기초는, 우리가 그 위에 단단히 밭 딛고 우리의 교육을 세워갈 그 교육적 기초는, 우리의 교육이 예언자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인교회의 교육은 비록 지금까지는 조금 등한시 했다고 해도, 이제부터라도 보다 더 많이 사회의 상황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왜곡들을 그냥 그렇게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 안의 다른 누군가를 향한 불의와 왜곡은 물론이거

시(詩)로 읽는 성경(聖經)

-모세오경



志常 김길홍 목사 (시인/소설가)

순종의 사람 이삭(Isaac)

(창세기 25:1-26:35)

늦 늦둥이 백세 아버 아브라함 몸에서 떨어진 생명의 씨앗 또 하나의 찢줄기

사막의 긴 여로 끝에 맺힌 이슬 한 방울 너 두 주먹 불끈 쥐고 울어대는 함성 속에 아혜 생명 보인다

하루 이를 사흘 일년 삼년 지극한 효자이더니 한낱 아브라함 손에 붙들려 모리아산 ■번제물 길 가네

아버 뒤 따르며 하던 말 “불과 나무 여기 있거니와 번제물 양(羊) 어디 있나이까?” “아혜가 예비하리라” 아버 말 듣고 목목히 나뭇단 지고 가는 소년 가락하더라

단위에 누워 눈 감고 아버 하는 일 순종하더니 새소리 그치고 흘러가는 구름 멈추는구나 만고(萬古)에 효도의 모범이요 하나님 사랑 표본이라

아브라함 아혜 만나는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아혜여 받으소서! 아름다운 이 예물! 영광 영광 영광

이삭 아내 리브가와 두 아들 얻었으니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라 형 에서 육체의 사람 아우 야곱 생명의 사람이니

아버 이삭 두 손 들어 야곱은 축복이요 에서는 저주일세 생명 길 육체의 길 따르는 자 영원한 귀감이라

효자 이삭 헤브론에 우거하다가 열조처럼 잠드니 그의 나이 백팔십세라 효도와 순종의 삶으로 그의 일기장(日記帳) 넘기었네

■번제 : 제사의 양식으로 먼저 소, 양, 비둘기 등의 목을 자르고 배를 기른 후 내장을 끊어내고 찢질을 벗기고 기름을 발라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를 지혜롭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인종차별이라는 불의, 왜곡을 극복하는 데 사회적 실천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한국의 격언은 사회적 불의와 왜곡을 마주했을 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이 세상이, 지금은 불의와 왜곡이 만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실 것임을 믿으며, 진정 정의롭고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예민하게 깨어 있고 현명하게 비판하고 용기 있게 실천하는 한인교회 공동체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인교회 교육의 담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인교회 교육의 그야말로 “기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계속)

자기 부정과 비하, 멸절과 파괴, 비교와 열등의식에 빠져 부정적 자아상을 품고 신음하는 현대인들 그러나 여기 사랑과 은혜, 꿈과 확신으로 가득한 창조적 자아상으로 **최고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 그대는 질그릇 인생인가, 청자, 백자 같은 곁작품 인생인가 연습과 리허설이 없는 **한 번 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대, 최고의 인생을 살아라



317면 / 13,000원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설교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명작 책을 펼치는 순간, 그대에게 최고 인생의 길이 열린다.

소강석 지음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6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가려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틴 루터 킹 퍼레이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막다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레위기야의 산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259면 / 11,000원